

2003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인권교육현장사례집

아이에서 어른까지, 소수자도 함께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부록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3. 12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인권교육현장사례집

: 아이에서 어른까지, 소수자도 함께

이 사례집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의 부록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영역의 분류 및 해당 사례 선정의 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머 리 글

한국의 인권교육은 인권운동과 그에 따른 사회적 인권의식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해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 군사정권 하에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억압에 맞서 사상, 집회, 표현, 결사,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인권운동은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유력한 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간민선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운동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로 그 관심의 폭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고, 일상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한 인권교육의 다양한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이렇게 10여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교사,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다. 각 단체마다 자신들의 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며,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시간과 창의재량 수업 등을 활용한 인권교육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록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군대, 대학, 교정시설, 공무원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점차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권교육이 좀더 대중화, 체계화,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높은 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선에서 인권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권교육의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와 경험, 인력, 자료의 부족을 인권교육을 하는데 있어서의 큰 장애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본 사례집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으로 진행한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의 일환으로서, 현재까지 실시된 인권교육의 사례들 중 주요

사례들을 수집해 정리한 것이다. 이 사례집이 인권교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작은 토대와 사회 전반적인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례집에 담긴 인권교육 사례들의 분류는 먼저 인권교육 대상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일반성인(대학생 포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 난민/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별도로 분류하였다.

이는 예를 들어 청소년 성적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과는 내용적 차별성이 뚜렷해 같은 범주에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연구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분류상의 모호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에 근거해 역시 연구팀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마지막으로 직무의 성격과 연관돼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을 각각의 범주로 나누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동, 청소년, 일반성인, 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 난민/북한이탈주민, 언론인,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의 10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사례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이 조사, 수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을 한정된 분량의 본 사례집에서 모두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해, 각 영역별 사례들 중 교육방법론이나 효과, 평가 면에서 창의적이고 특징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췌해 실었음을 밝혀둔다.

00. 머리글	1
01. 아동	5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 (유아기관용) ·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초등학교용) 인권과 친구하기 2002 - 제4회 어린이 인권캠프 나는야인권수호천사	
02. 청소년	79
'일렵, 휴먼 라이트즈' 2001 청소년인권캠프 갈등해결과 평화, 인권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을 따라 떠나는 여행학교	
03. 성인 일반	121
민가협 인권강좌 평화행진 2001	
04. 여성	131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학교 “당당한 여성, 보람있는 일터”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숍 (2003)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보호시설 실무자를 위한 교육	
05. 장애인	145
2003 장애인 인권학교 - “일상에서 인권찾기-차별허물기, 그리고 전쟁과 장애” 장애인노동자 권리찾기 교실 장애인 청년학교 장애여성 공감 교육과정-장애여성의 성	
06. 성적소수자	169
2003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 2003 겨울 동성애자 인권캠프 여성 성적소수자 자긍심갖기 프로그램	
07. 이주노동자	181
인권과 아시아 연대를 위한 인권 강좌 - 아시아의 창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건강 / 월레노동법 교육 인권과 아시아 연대를 위한 인권강좌	

08. 난민/북한이탈주민	199
『북한인권▷ 난민문제 아카데미』	
09. 언론인	207
인권분야 담당기자 전문연수	
10.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213
학교 생활과 인권 더불어 함께하는 교실 만들기 인권적인 교실을 위한 교사 주간 평가지	

1

아동

1 아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연령적인 특성상 그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면서도 시행이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게 하기, 자신이 가진 권리를 스스로 터득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등은 유년기 때부터 지식이 아닌 감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인권교육은 그 어느 연령층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방식과 교재 개발, 전문 강사의 발굴 및 양성 등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아동 대상의 인권교육은 이제 막 싹을 틔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동학대에 주로 초점을 맞춘 ‘굿네이버스’, 캠프 형식을 통해 아동들에게 인권 감수성을 길러주는 ‘인권운동사랑방’, 그리고 각 지부별로 아동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YMCA’ 등이 아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 (유아기관용)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초등학교용)

주 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95-3 사회교육관 4층
전화 및 팩스	: 02)338-1052 02)338-0724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goodneighbors.org
	ministry@goodneighbors.org
담당자	: 김민애 대리
기 간	1999년부터 현재까지
장 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 상	아동, 부모, 교사
목 적	

아동, 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아기관을 대상으로 한 '아동힘키우기 서비스(Child Empowering Service, CES)' 와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Participatory Activi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PAPC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아동용 프로그램 내용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것,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등에 대해 알려준다. 특히 보호받지 못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상황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부모용 프로그램 내용은 바람직한 훈육방법을 제시하면서 적절한 훈육방법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아동 양육시 부모로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부모양육척도를 제시하여 부모들이 아동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알게 해준다.

교사용 프로그램 내용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알게 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알려주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대 사례 발견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부모-교사에게 실시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아동과 그 지원체계인 가정과 교육현장을 동시에 교육하여 아동권리를 정확히 알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권교육상의 특징

먼저 강사진의 경우, 단체의 전국 21개 지부에서 교육강사를 모집하고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이후 강사동아리로 결합시킨다. 강사들은 사회복지, 아동복지 전공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교육은 이들 강사들이 직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아동과 부모 교육에서는 상황그림판, 해부학적 인형, 권리카드, 권리게임판 등의 교재와 교구를 적절히 개발하여 사용하였다(아동학대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1391.or.kr>의 '교육프로그램-교재교구' 참조). 이러한 교육을 통해 권리라든 추상적인 용어를 낯설어하던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친근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학대 상담 혹은 고발전화인 핫라인 1391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되었다.

● 1.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

아동 교육 -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부모 교육 - 바람직한 자녀양육

아동행동의 이해/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훈육 방법/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의 권리/ 스트레스와 극복방법

교사 교육 ①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현황/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교사 교육 ② - 아동학대 대처하기

신고의무자인 교사/ 신고의무자인 교사의 역할

▷부록

1. 체벌에 대한 지침 2.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3.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

● 2.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 교육 ① -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가진 권리 알아보기/ 아동권리 영역 알아보기/ 아동권리에 대한 문장 완성해 보기

아동 교육 ② - 소중한 나, 내가 보호할래요

보호받을 권리 알아보기/ 보호해야 할 내 몸과 대처방법 알아보기

아동 교육 ③ - 우리의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학대받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이야기하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부모 교육 ① - 아동에 대한 이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이해/ 아동행동의 이해/ 갈등적 부모-자녀 관계의 이해/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훈육 방법

부모 교육 ②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의 권리/ 스트레스의 결과와 대처방법


▷부록

1. 체벌에 대한 지침 2.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3.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

아동힘키우기서비스(CES)

- 아동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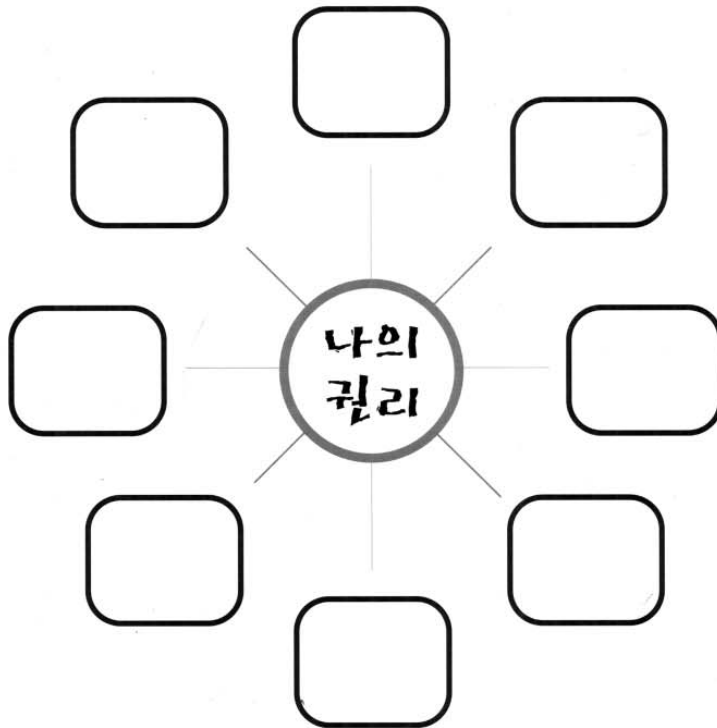


 **아동학대문제연구소**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 아주 많아요.
스티커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붙여보세요.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 아래의 그림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스티커로 표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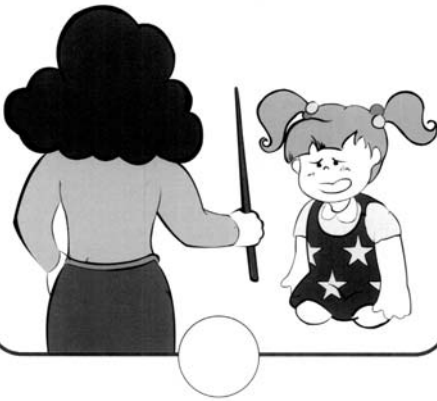
“즐거운 마음”이면 😊 웃는 얼굴을 붙이고

“슬픈 마음”이면 😞 우는 얼굴을 붙이세요.





엄마가 회초리로 때려요.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가자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배를 만져요.



늘 혼자 집에 있어요.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엄마가 화가 나서 물건을 던져요.



모르는 아저씨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해요.



어떤사람이 치마를 들춰요.



엄마가 소리지르고 욕해요.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예방교육

(PAPCM)

아동교육



아이비즈 아동학대문제연구소

후원 :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권리나 학대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몸과 마음이 슬펐던 경험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 내가 가진 권리 알아보기
2. 아동권리 영역 알아보기
3. 아동권리에 대한 문장완성 해 보기

1 내가 가진 권리 알아보기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대로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두 0 표 해 보세요.

- ① 국적이 있는 것 ()
- ② 열심히 공부하는 것 ()
- ③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 ()
- ④ 잘 자라는 것 ()
- ⑤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것 ()
- ⑥ 이름을 갖는 것 ()
- ⑦ 병원 치료를 받는 것 ()
- ⑧ 재미있게 뛰어 노는 것 ()
- ⑨ 응급상황이나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
- ⑩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

아동권리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생활하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아동권리

생존권



모든 아동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 건강관리, 교육, 레크리에이션, 안전한 장소, 깨끗한 물 그리고 놀이 등에 대한 기본적 욕구 충족과 의료 혜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권

모든 아동들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동들은 유해한 행동이나 관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별대우, 상업적 또는 성적 착취, 신체 또는 정서학대, 무력행위, 전쟁, 기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발달권

모든 아동들은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아동들은 자신들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신체적,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환경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권



모든 아동들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 양심과 종교의 자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의견을 가지는 것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아동권리 영역 알아보기

아동권리 영역 알아보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별로 함께 생각하면서 권리카드를 생존, 보호, 발달, 참여 권리영역에 따라 분류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생 존	
보 호	
발 달	
참 여	

여러분이 권리영역을 표현한 대로,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진 권리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권리가 한가지 이상의 권리영역에 속할 수 있고 4가지 권리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왕따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생활하기로 합시다.

3 아동권리에 대한 문장 완성해 보기

다음의 완성되지 않은 문장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적어 보십시오.

1. 나는 권리를 _____ 생각한다.

2.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는 _____ 이다.

3. 나는 _____ 권리가 좋다.

4.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권리는 _____ 권리라고 생각한다.

5. 친구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했을때 _____ 생각한다.

다음주 예고 : 소중한 내 몸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II.

소중한 나, 내가 보호할래요

오늘 우리는...

1. 보호받을 권리 알아보기
2. 보호해야 할 나의 몸과 대처 방법 알아보기

1 보호받을 권리 알아보기

보호받을 권리가 심하게 침해 당한 것이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보살펴야 할 책임있는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이 아동을 심하게 때리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동을 잘 돌보지 않고 의,식,주 제공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며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만지려고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종류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그리고 성학대가 있습니다.

신체학대



부모나 어른들이 심한 매질을 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벨트로 때리거나 몽둥이 같은 것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꼬집고, 이로 깨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 물건이나 던져 상처를 내는 행위, 목조르는 행위 등도 신체학대에 해당됩니다.

정서학대



부모가 아동들을 사랑하지 않고, 귀찮아 하며, 협박하고 위협하고, 비난하며, 마음에 상처주는 말이나 소리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임



아동들의 기본적 욕구, 즉 적절한 의식주 및 사랑 그리고 의료적 보호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혼자서 밥이나 우유를 챙겨 먹을 수 없는 어린 아이들도 밤늦도록 집에 혼자 방치해 두거나 1년 내내 감기에 걸려 있어도 병원이나 약도 사먹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성학대



수영복으로 가린 부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며 이 소중한 부분을 만지거나 보려고 하거나, 어른들이 보는 비디오나 잡지를 함께 보자고 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내놓고 만져보게 하거나 보도록 하는 것도 성학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호받아야 권리가 침해 당한 것을 아동학대라 하였고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소중한 나의 몸, 보호받아야 할 나에게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2 보호해야 할 나의 몸과 대처 방법 알아보기

내 몸은 특별하고 '나만의 것' 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깨끗하고 건강하도록 하는 것 외에 누군가가 여러분 몸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학대' 라고 하며 이러한 '성학대' 가 일어나거나 누군가 여러분의 몸을 만질때 기분이 좋지 않거나 싫다면 다음과 같이 소리쳐 보도록 합시다.



①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하지 마세요", "싫어요"

② 그 자리에서 빨리 뛰쳐 나와야 합니다.

③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어른들에게 빨리 도와줄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세요.

★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보도록 해요



1. 부모님께 부탁하기

예) "엄마,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때리거나 소리지르지 말고 말로 타일러 주세요."

2. 나를 도와 줄 수 있는 어른의 연락처 기억하기

(이름)
(전화번호)

3. "아동학대에방센터"로 전화하기

아동학대에방센터 전화번호
:1391(일삼구원)

○ X 문제

소중한 부분을 누군가 만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는 대로 ○, X 표 하십시오.

- ① 큰소리로 말한다 “안돼요”, “싫어요”, “하지마세요.” ()
- ② 방긋 웃는다. ()
- ③ 재미만한 목소리로 “하지 마세요”, “안돼요”라고 말한다. ()
- ④ 소중한 부분을 만지는 사람이 나를 귀여워 하는 행동이므로 가만히 있다. ()
- ⑤ 얼른 도망간다. ()
- ⑥ 공중화장실은 꼭 혼자서만 간다. ()
- ⑦ 비밀이니까 나 혼자서만 비밀을 지킨다. ()
- ⑧ 친구들에게만 이야기 한다. ()
- ⑨ 엄마에게 말하면 꾸중 듣거나 엄마가 알면 속상해 하니깐 비밀로 한다. ()
- ⑩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를 도와 주실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한다. ()

다음주 예고 : 오늘배운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아동학대 사례”를 잡지, 신문, 인터넷 등에서 찾아오기로 해요.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 관련 포스터, NIE 활동, 동요 만들어 오기 등 다양한 과제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III.

우리의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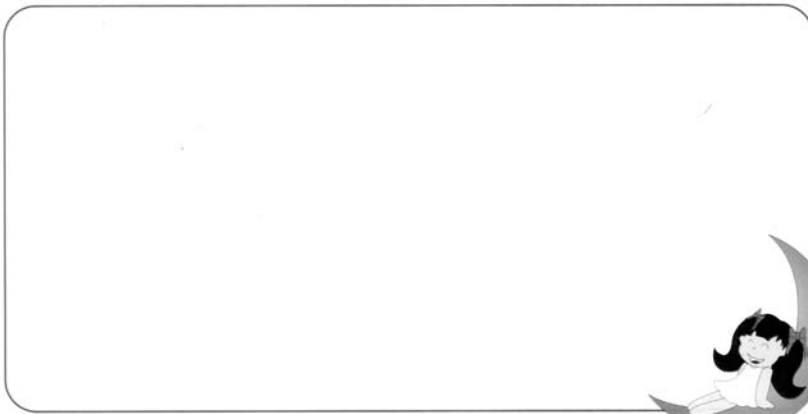
여러분은 권리나 학대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몸과 마음이 슬펐던 경험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 학대받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2.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이야기하기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1 선생님이 들려주는 학대받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선생님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봅시다.



2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이야기하기

준비한 과제(사례, 포스터, NIE, 동요)를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기

과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인가요?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해 보아요.

1)

2)

3)

4)

5)

참/고/문/헌

이미경(1998), 성학대예방프로그램이 아동의 성학대 위험지각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양희(1999), 유아용권리교육프로그램, 아동권리학회·UN아동권리협약, 10주년 기념학술대회, 199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지역사회복지회(199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와 현장에서의 적용방법, Save the Children Korea.
한국지역사회복지회(1999), 유엔아동권리협약훈련교재, Save the Children Korea.
한국지역사회복지회(2001),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매뉴얼, Save the Children Korea.
Seattle Institute for Child Advocacy(1985), About Touching.

인권과 친구하기 2002 - 제4회 어린이 인권캠프

주 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3층

전화 및 팩스 : 02)741-5363 02)741-5364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sarangbang.or.kr>

humanrights@sarangbang.or.kr

기 간 2002년 8월 5일~7일

장 소 경기도 양평 청운 인성수련원

인권교육상의 특징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의 홈페이지를 보면,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으로서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을 의미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의 옹호와 방어에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하는 '인권을 위한 교육',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인권을 통한 교육'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과 친구하기 2002-4회 어린이 캠프』는 이런 원칙에 충실히 입각해 짜여진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다. 자기에 대한 소개를 통해 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평등권, 행복추구권,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건강권, 집회결사의 권리 등을 그림을 통해 쉽게 전달하는 '어린이의 권리 탐구' 등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에 해당한다. 또, 장애, 아동노동, 아동학대, 건강권, 왕따, 환경 문제에 대해 퀴즈, 그림, 상황판, 기타 보조교재를 활용해 교육한 '인권체험놀이', '인권모의재판', '알리자 인권' 등은 일상의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인권을 위한 교육'에 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둠활동, 협동놀이, '빛으로 만드는 인권',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과 토론, 참여활동 등의 과정 자체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 감수성을 키워가는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내용, 방법, 배치 등 모든 면에서 교육자들의 풍부한 고민과 눈높이에 대한 배려, 내실있는 준비가 녹아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잘 만들어진 어린이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프로그램

● 인권과 친구하기 1

당신은 누구십니까/어린이의 권리 탐구/

인권체험놀이 - 궁금해 마을/ 실 수 없는 마을/ 무서워 마을/ 튼튼한 마을/ 외로워 마을/
깨끗한 마을

● 인권과 친구하기 2

인권 모의재판

● 인권과 친구하기 3

알리자 인권

협동놀이 - 영차! 영차! 힘을 모아요

함께 만드는 인권 - 빛으로 만드는 인권

동글동글 인권

모여라 우리 모둠 - 노래가사 바꾸기

“인권과 친구하기 2002”



- ▷ 언제 : 8월5일- 7일(2박3일)
- ▷ 어디서 : 경기도 양평 청운인성수련원
- ▷ 누가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 인권과 친구하기 1

1. 당신은 누구십니까?

■ 목 표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아동권리협약 몇 조에 해당되는지 배워요

■ 활동내용

- ① 2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얼굴을 종이 위에 그리고 상대방을 10단어로 묘사한다. 얼굴은 최대한 자세하게 표현한다.
- ② 서로 돌아가며 상대를 소개해준다. 소개가 모두 끝나면 서로 그림과 글이 적힌 종이를 주고받은 후 질문이 담겨 있는 종이에 이것을 붙인다.
- ③ 질문에 따라 답을 써내려 간다.
- ④ 질문의 내용이 아동권리협약의 몇 조에 해당하는지 빈칸에 쓴다.

■ 준비물

프로그램 예

얼굴을 그릴 종이와 종이 40장씩, 크레파스, 색연필 등 필기도구, 풀(조별 2개), 테이프(조별 1개), 질문지

■ 보조자료 - 이동권리협약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누가 이름을 지어주었나요?

별명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그 별명을 좋아하나요?

친구가 기분 나빠하는 별명을 부르는 것은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잘못이에요. 아무도 싫어하는 별명이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이동권리협약 조)

그림과 글만으로 나를 알아볼 수 있나요? 자! 각자 받은 그림과 글을 이곳에 붙여주세요

머리카락을 이곳에 붙여주세요

이 머리카락은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느 시대에도 이런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 머리카락처럼 당신도 유일하답니다. 이 세상 어느 시대에도 당신처럼 생기거나 당신처럼 생각하고, 당신처럼 글을 쓰는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무슨 띠인가요? (이동권리협약 조)

누가 키워주셨나요? (이동권리협약 조)

언니, 오빠, 동생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동권리협약 조)

종교가 있나요? (이동권리협약 조)

자유로운 시간에 즐겨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이동권리협약 조)

병원 기본 적이 있나요? 왜 갔나요? (이동권리협약 조)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나요? (이동권리협약 조)

좋아하는 음악 종류는? (이동권리협약 조)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이동권리협약 조)

또래 친구들이 만든 모임에 참여해본 적이 있나요? (이동권리협약 조)

2. 어린이의 권리 탐구

■ 목 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 활동내용

- ① 캠프자료집을 이용해서 활동을 한다.
- ② 아동권리협약 각 조항이 쉽게 설명되어 있고 로고가 그려져 있다. 선생님은 각 조항에 로고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질문을 읽고 아이들이 각자 대답을 써 내려간다.

■ 준비물

필기도구, 캠프자료집

■ 자 료

1. zzz, 쉽과 놀이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내가 친구에게 권하고 싶은 놀이, 취미 생활은?

2. 다양한 문화

모든 사람은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즐길 권리가 있어요.
문화는 무지개처럼 다양할수록 예쁘답니다.



내가 아는 다른 세계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해 보세요.

3.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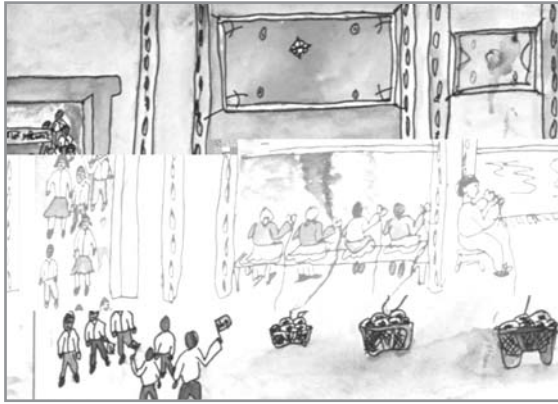
우리는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내 생각을 표현했을 때 좋았던 경험은?
그리고 나눴던 기억은?

4. 일

우리는 정신과건강에 해를 주고 배움에 방해가 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또한 일을 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 사는 아이인데, 손으로 카펫을 짜는 작은 공장에서 일한다.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해서 내가 돈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우리 동네의 내 친구들도 다 나랑 비슷 한 처지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인 거의 없다. 나처럼 카펫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만 백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난 하루에 15시간 가까이 일한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쉬 수가 없다. 쉬고 싶어도 감독 아저씨가 무섭게 지켜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카펫을 짜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작은 창문으로 먼지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난 늘 기침을 해대고, 천을 염색하는 악퐁에선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난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난 글도 모르고 학교에도 못 다니는데 내가 어른이 되면 카펫 짜는 것 말고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시키는 어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5. 차이

‘우리는 피부색, 성별, 재산, 종교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평등 할 권리가 있어요.



이런 차별은 안 된다×

내가 반대하는 차별의 종류는?

그 이유는?

6. 적합한 생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실업이나 장애 또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이웃에게 사회보장이 꼭 필요해요.

○ 인권체험놀이

▷ 목적

- 우리의 인권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소중함을 깨달아요
- 인권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요

▷ 준비물

- 모둠별 진행표(이동경로는 모둠별로 다르게 적어준다.)

1. 궁금해마을

■ 활동내용

- ① ○, × 퀴즈로 진행한다.
- ② 아이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 자료: 퀴즈내용

1. 장애인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다: ×
장애인의 80% 이상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이후에 사고로 장애인이 된 경우입니다.
2. 시각장애인은 안내하는 맹도견만 있으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다: ×
맹도견은 시각장애인이 길을 갈 때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맹도견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상점이나 건물들이 많아서 더 어려움이 많답니다.
3. 청각장애인 중에는 조금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청각장애인에는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차소리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4.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도 낮다: ×
뇌성마비는 뇌의 한 부분의 이상으로 몸이 불편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생각하고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

5. 장애인을 만났을 때에는 그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도움을 준다. :○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장애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실례가 되는 행동입니다.
6. 시각장애인도 내용을 설명해 주면 함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
7. 장애인 친구를 도와주면 나도 장애인이 된다. :×
8. 장애인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끼리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사람들은 상대의 행동을 서로 보고 배우는 것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끼리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학교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행동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답니다.
9. 장애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
10. 장애인은 취직이 되어도 일을 잘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처음부터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더 좋다. :×

☞ 인권과 친구하기 2

▷ 목적

- 차이와 차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요.
- 다르다는 것은 존중받아야 할 일이며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을 알아요.

1. 인권모의재판

■ 활동내용

- ① 모둠별로 모의재판 대본을 받고 함께 읽어본다. 대본의 내용은 아이들이 수정할 수 있다.
- ② 각 상황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부분을 비워두고 아이들끼리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린다.
- ③ 판결문을 쓰고 역할을 정해 한 조씩 돌아가며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 ④ 모의재판이 끝나면 판결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거나 더 보충할 내용이 있는 모둠은 이야기를 해본다.

■ 자료: 모의재판대본

1) '살색크레파스'에 대한 재판

판사_ 살색크레파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발언해주세요.

검사_ 피고 살색크레파스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피부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피부색은 한가지가 아닙니다. "살색"만을 피부색으로 사용하면, 거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증인을 불러보겠습니다.

판사_ 증인, 이주 노동자나와주세요.

검사_ 살색크레파스로 그린 얼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주노동자 - 제 얼굴은 검은 색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살색만을 피부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살색에 가깝거나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좋아하고, 저와 같은 검은 피부색의 사람을 보면 무섭다거나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쾌하고서글픔을 느낍니다.

변호사_ 이의 있습니다.

판사_ 말씀해보세요.

변호사_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색은 증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해주는 색깔을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증인의 나라에서는 검은색을 피부색으로 쓰면 되고 우리는 살색을 쓰면 됩니다. 피부색으로 무슨 색깔을 쓰건 우리 맘이란 말입니다. 재판장님, 살색크레파스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측 증인인 '한국 어린이'를 불러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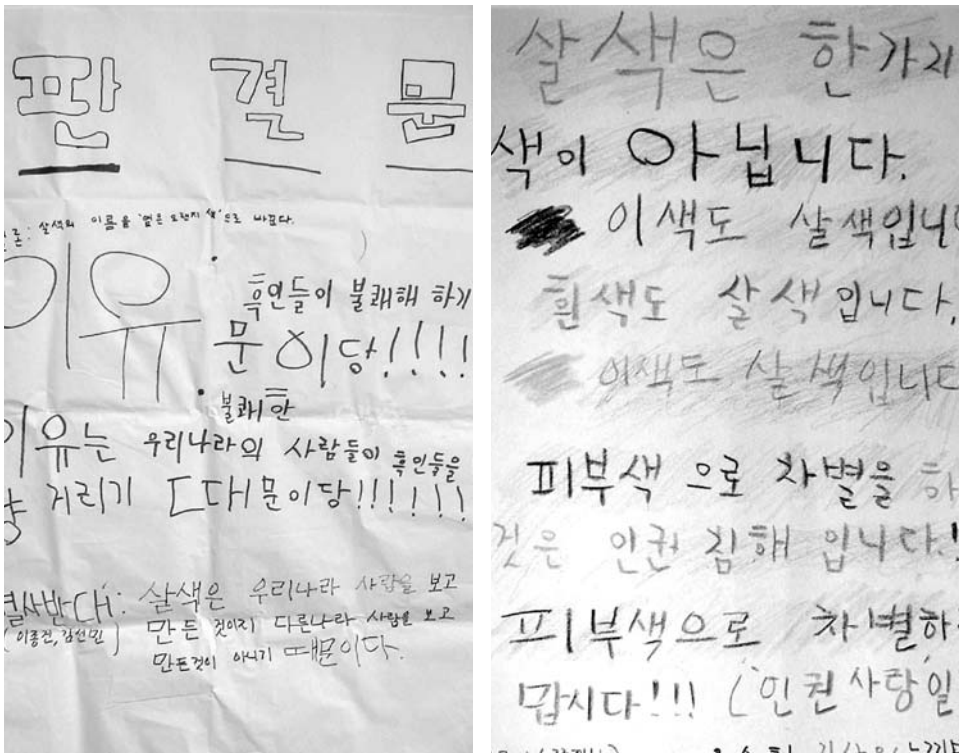
증인(한국 어린이) _ 저는엄마,아빠나 친구들 얼굴을그릴 때 항상 살색 크레파스를 씁니다. 살색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니까요. 우리 피부랑 비슷한 색깔이라 살색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판사_ 피고 살색 크레파스, 마지막으로 할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살색 크레파스_ 저는 많은 어린이들이 저를 사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저를 사용할 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살색'이란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저를 계속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제 이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_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 캠프활동사진



나는야 인권수호천사

주 관 안산 YMCA 아동인권센터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8-3

전화 및 팩스 : 031)410-3570 031)410-2111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ansanymca.or.kr>

cjstk69@netian.com

담당자 : 박성희 사무국장

대 상 초등학교 재학 중의 아동

인권 교육상의 특징

어린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인권에 대해 OX 퀴즈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전달한 후, 다양한 게임과 놀이, 회의를 통해 자신의 인권의식 수준과 차별, 권리를 인식시킨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어린이 인권 약속문을 나눠줌으로써 스스로에게 인권을 지킬 것을 다짐하도록 한다. 첨부한 자료 중 뒷부분은 부모가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된 워크북이며, 인권존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족으로 되기 위한 부모 교육을 위한 자료이다.

프로그램

- 인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 5문 5답
- 인권(사람의 권리)은 무엇일까요
- 인권교육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나의 인권접수
-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 놀이로 배워보는 인권
- 인권 주사위놀이
- 회의를 해봅시다
- 나의 씨앗 그리기
- 약속문 만들기-나는야 인권수호천사

어린이의 친구 아동인권센터

나눔야 인권수호천사



모든 어린이는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다



■ 내 이름은

■ 내가 다니는 학교는

■ 내가 사는 곳은



안산 YMCA

인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 5문 5답



1 인권은 왠지 어른들의 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권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지요.

2 우린 어린데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인권은 어른들과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 줘야 해요.

3 내맘대로 할수있는게 인권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4 내 인권을 침해했을때는 싸워도 되는 거지요?

인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할수 없는 나의 권리에요. 그러나 어떻게 싸워야할지는 깊이 생각해봐야지요.

5 내 인권이 소중한 거니까, 내것만 잘 지키면 되나요?

아니에요.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한 거예요. 여럿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해요.



인권(사람의 권리)은 무엇일까요

인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에게나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예요.

■ 인권은 권리와 의무가 꼭 함께 해요.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모두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인권의 의무예요.

■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우리의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라고 생각해요.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중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어요.

①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③ 보호의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간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인권교육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권을 중심으로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생활교육입니다.

■ 무엇을 배우는 건가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다르듯이 생각과 표현방식, 생활문화가 또한 다 달라요. 이러한 다른 삶의 방법과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해요.

■ 인권의 가치를 알고 생활속에 실천하는 어린이들은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스러워져요.
-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습득하고 실천할수 있게 되요.
- 우리의 미래사회가 보다 잘 융화되고 서로를 존중하도록 될거예요.

나의인권점수 알아보기

나의 인권점수

과연 나는 수호천사가 될수있을까요



- ① 화가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표현을 한다. O X
- ② 정말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아이가 적어도 한 명은 있다. O X
- ③ 친구의 비밀을 지키지 않아서 싸운적이 있다. O X
- ④ 동생과 단둘이 있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다. O X
- ⑤ 준비물은 항상 친구들과 나누어 쓴다. O X
- ⑥ 친구가 잘못을 했을때 때리거나 따돌려본적이 있다. O X
- ⑦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O X
- ⑧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O X
- ⑨ 내 친구를 사람들앞에서 창피를 준적이 있다. O X
- ⑩ 친구와 나는 한가족처럼 친하다는 생각이 든다. O X

이럴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은 어리지만 자기를 보호하고 표현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빈칸에 적당한 말이나 행동을 써보세요

예 > 낯선 사람이 가까이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때

저희 부모님께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어요


① 나를 귀찮게 하는 친구에게 _____

② 친구를 따돌리거나 놀리는 친구에게 _____

③ 내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건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을때 _____

④ 몸이 불편한 친구가 길을 도움이 필요한 듯이 보일때 _____

⑤ 잦은 실수로 모두의 활동에 피해를 주는 친구에게 _____



놀이로 배워보는 인권

1 미완성 문장만들기

다음의 단어는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문장을 만들거나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문장은 아래의 비고를 참고해 보세요)

예 > 건강 건강하게 자라고 싶어요

생각

차별

배움

자유

헤어짐

비밀

말

노동

도움

인권

보기







- 나도 **생각**해서 말할 수 있어요.
-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아요.
- 우리는 **배우고** 싶어요.
-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수있어요.
-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른들은 우리를 **도와주어야** 해요.
-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릴 강제로 부모와 **헤어질**수 없어요.
-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건 강제로 **말**하게 할수없어요.
-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내 **말**이 존중 받아야 해요.
- 우리를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는 안돼요.
-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갖는 것이 **권리**입니다.

2 **우린 같지만 다 달라요**

친구들과 함께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항목	같은점	다른점
예) 흑인과 백인	먹어야 산다, 잠을 잔다, 사람이다.	피부색, 얼굴모양, 사는 동네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자와 여자		
동생과 나		
내 짝꿍과 나		
어른과 아이		

<p>출발점</p> 	<p>어른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p> 	<p>남의 권리를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p> 	<p>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p> <p>➡ 앞으로 2칸</p>
<p>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인권 주사위 놀이</p> 		
<p>국가는 부모님이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챙겨주어야 한다.</p> <p>다시 출발점</p> 			
<p>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p> <p>➡ 앞으로 2칸</p>			
<p>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p> 	<p>잘못을 할 때 벌을 받아야 하지만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한다.</p> 	<p>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유괴를 당했을 때는 국가와 부모님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p> <p>뒤로 3칸 ➡</p>	<p>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p>  <p>➡ 앞으로 1칸</p>

<p>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p> 	<p>내가 원치않는데 내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을수 없게 할 권리가 있어요</p> 	<p>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이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p> <p>☉ 앞으로 2칸</p>	<p>우리에게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p> 
<p>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p> <p>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하다 !!!</p>		<p>우리에게도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p> <p>☉ 뒤로 3칸</p> 	<p>우리는 신체적으로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p>
<p>우리가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p> 	<p>부모가 안 계실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p>	<p>우리에게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p> <p>☉ 앞으로 1칸</p>	<p>전쟁, 홍수,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p> 



회의를 해봅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요.
한번 회의진행방법을 배워볼까요??

■ 회의진행방법

- ① 먼저 진행자, 기록자를 정합니다.
- ② 다음은 회의시간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안건을 말합니다.
- ③ 안건에 대해 결정을 할때는 거수 또는 종이에 써서 냅니다.
- ④ 회의가 끝나면 기록자는 그날 결정된 사항을 읽습니다.
- ⑤ 진행자는 다음 회의 날짜를 공고합니다.

■ 주의사항

- 의견을 말할때는 반드시 진행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 회의를 할때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 ■ 회의일지 </div>	
날짜	장소
참석한 사람	
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회의 내용	<div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2px 5px; text-align: center;">결정사항</div>
<div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border-bottom: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0;"> 다음회의 일시, 장소 </div>	



나는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열매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씨앗이 소중히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나는 다른 씨앗에서도 영양분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씨앗 그리기

내 씨앗 이름

나의 씨앗을 그려보세요

어떤 영양분이 필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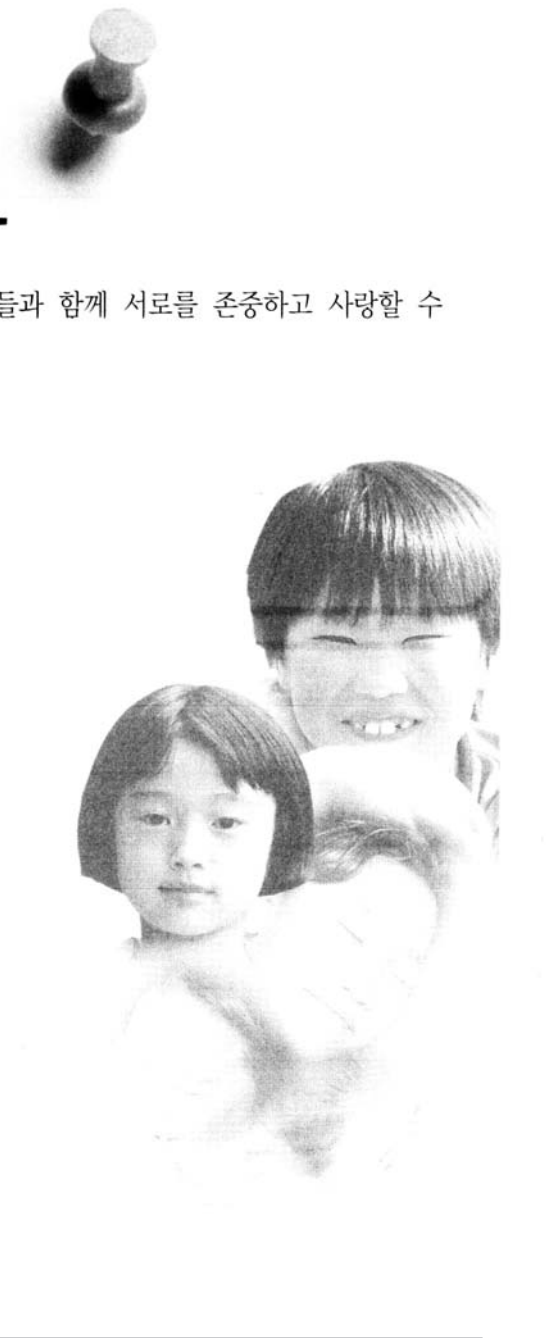
드디어 열매 탄생

이 열매를 어디에 쓸까요

약속문 만들기

나는야 인권수호천사

회의 시간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약속문을 만드세요



안산YMCA

어린이의 친구 아동인권센터

우리 가족은
인권지킴이

모든 어린이는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다



「우리가족 인권지킴이」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며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경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는등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보호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막 사회에대한 인식과 도덕관 세계관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올바른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미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부모님이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인권존중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가족으로 되기위한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인권지킴이 활동은 지역사회로 퍼져 어린이가 존중받고 우선되는 아동인권의 향상을 가져올것입니다.



아동인권 새롭게 보기 ①



인권에 대한 우리 가족의 생각??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고 적어보세요





아동인권 새롭게 보기 ②

우리가 갖고있는 인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 「5문 5답」

❶ 인권운동은 데모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인권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때문에 이를 지키기위해 우리모두가 함께 해야할 일입니다.

❷ 인권은 양심수나 학대받는 아동, 성폭력과 관련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인권을 침해 받은 사람들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상처받는 사람또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요

❸ 아동이랑 인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이들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며 특히나 아직 어려서 자신을 보호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과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❹ 내자식 내맘대로 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아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상태의 일방적인 지도는 아이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세우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❺ 그럼 우리 애들만 잘키우면 되는 거지요?

우리아이와 다른사람의 권리가 모두 잘 지켜져야 민주사회가 될 수 있는 것지요. 나의 권리는 곧 다른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족의 인권지수 ①



어린이가 (0·X)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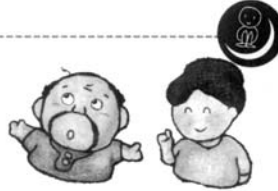
- 1 화가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표현을 한다 O X
- 2 하고싶지 않아도 해야할 때가 더 많다. O X
-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O X
-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O X
-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O X
- 6 잘못을 했을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O X
-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O X
-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O X
- 9 사람들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O X
-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O X

★★★★ O가 몇 개나 되나요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이상 인권 오염이

우리가족의 인권지수 ②

어른들이
(O·X) 해보세요



- | | | |
|--------------------------------|--------------------------|--------------------------|
| 1 가족이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켜진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 부모의 감정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수있도록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수있도록 배려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9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O 가 몇 개나 되나요

6개 이상 인권 지킴이 / 3-5개 인권 노력이 / 2개이하 인권 오염이



우리가족 인권 지수 ③



엄마아빠, 이런 말과 행동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 1 내가 시험을 못봤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살겠다"
- 2 제가 나쁜행동을 한적이 있어요 그때 아빠가 저를 때리면서 그러셨어요.
"당장 나가 너 같은건 자식도 아니야"
- 3 전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항상 엄마는 이렇게 말하세요.
"OO 좀 본받아라"
- 4 우리 아빠는 엄청 무서워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밖으로 저를 내쫓아요,
- 5 엄마는요 제가 하고싶지 않은데도 학원에 막 가라고 해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 6 밤늦게 까지 저 혼자 집에 있을때가 있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 7 엄마 아빠는 우리가 보는데도 막 소리지르고 싸워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위 이야기들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거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족 인권 지수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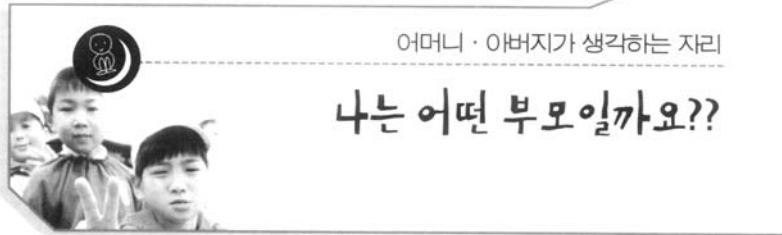
이럴 때는
이렇게 해 보세요



- 1 이거밖에 못하겠니?
너도 속상하겠다, 다음번에는 잘할수있을꺼야
- 2 공부 좀 열심히 해 너 내가 죽는 꼴 보고싶니?
네가 성적이 안올라서 엄마도 너무 걱정 된다.
- 3 니가 하는일은 왜 맨날 그모양이나
번번히 안되서 무척 속상하지?
- 4 니가 알아서 뭐하려고, 넌 공부나해
이건 어른들이 해결해야 하는 거란다.
- 5 사내자식이 질질 짜구그래
많이 속상한가 보구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면 더욱 좋겠죠)
- 6 아이들이 자꾸 뭔가를 끊임없이 해달라고 조를 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건지 아니면 애정확인 하고싶은것인지 생각해보세요
- 7 엄마는 나만 미워해
혹시 지나치게 내 아이에게만 엄격했는지 생각해보세요
- 8 아이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있을 때
한템포 쉬면서 큰숨을 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을수 있는곳은 가정입니다. 따뜻한 말과 잘 할수있다는 용기가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 권위있는 양육태도

-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의 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 자녀의 취향, 복지, 자율에 큰가치를 둔다. / · 합리적이고 문제중심적이다.
- 자녀와 많은 토론을 하고 규칙에 대해 설명해준다.
- 애정이 있으면서 엄격하다.

★아동에 미치는 영향 - 잘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자신감이있고 성취지향적이며 성인과 또래에 협동적이다.

■ 권위적(통제적) 양육태도

- 복종, 동조에 큰가치를 둔다.
- 벌을 많이 주고 절대적이고 강제적인 훈련을 중요시한다.
- 아동이 지킬 규칙을 많이 정해놓고 규율에 따르도록 강요한다.

★아동에 미치는 영향 - 덜행복하고, 덜 다정하며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부족하며 즐겁지 않다. 또한 자신감이 없고 호기심도 없으며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사회성이 부족하다.

■ 허용적(방임적)태도

- 자녀에게 무조건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다.
- 훈련에 수동적이고 아동에게 요구를 적게하고 원하는대로 허용한다.
- 통제하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동에 미치는 영향 -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다. 위세부리는 경향이 있고 자기통제의 힘이 약하고 독립심과 성취감이 부족하다.

어머니 ·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리

사랑의 매란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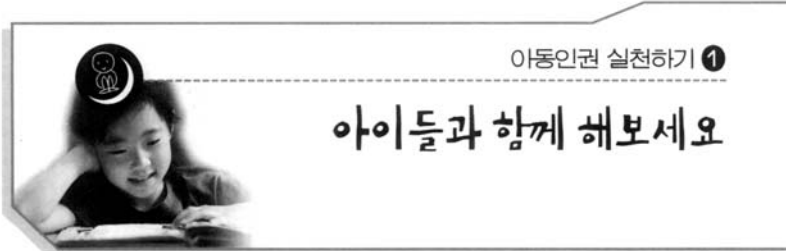
부모 는 자신이 어떠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신체적 구타나 체벌을 받는다면 이를 절대로 인정할수 없으며 모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어리지만 어린이들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깊은 상처를 입고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주어 평생동안 기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이가 잘못을 하였을 때 감금하거나 체벌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면 매에 익숙해 질뿐 아니라 친구들을 때리거나 하는 일을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어린이가 될 것이다.

때문에 부모는 가능한 모든 교육적 방법을 구상하여 옳고 그름에 대해 아이들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이며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항상 아이들에게 잘할수있다는 용기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물론 때로는 벌을 주어야 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의 매」가 부모의 애정과 사랑이 담겨있고 어린이가 공감하는 체벌로 쓰이기 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매」라는 미명하에 체벌이 훈육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아이가 의사 표시를 할수있도록 해야 하며 부모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



1 미완성 문장 만들기

다음의 단어는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모님도 해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해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문장은 다음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예> 건강

건강하게 자라고 싶어요

생각

.....

자별

.....

배움

.....

자유

.....

도움

.....

헤어짐

.....

비밀

.....

말

.....

노동

.....

인권

.....

보기

- 나도 생각해서 말할 수 있어요.
-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아요.
- 우리는 배우고 싶어요.
-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수있어요.
-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른들은 우리를 도와주어야 해요.
-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릴 강제로 부모와 헤어지게 할 수 없어요.
-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건 강제로 말하게 할수없어요.
-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내말이 존중 받아야 해요.
- 우리를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는 안돼요.
-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갖는 것이 권리입니다.

2 가족사진 함께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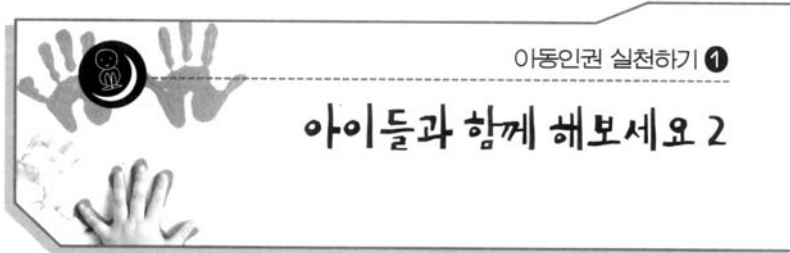
가족 모두가 아이와 같은 나이 때의 사진을 꺼낸 뒤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 1) 아빠/엄마는 내나이때 어떤 꿈을 갖고 있었나 / 그리고 나의 꿈은 무엇인가.
- 2) 아빠/엄마는 어떨 때 제일 속상했나
- 3) 아빠/엄마는 어떨 때 제일 기뻐나
- 4) 나의 지금은 엄마/아빠 어릴때와 어떻게 다른가
- 5) 나는 어떨 때 속상한가

3 가족의 기념일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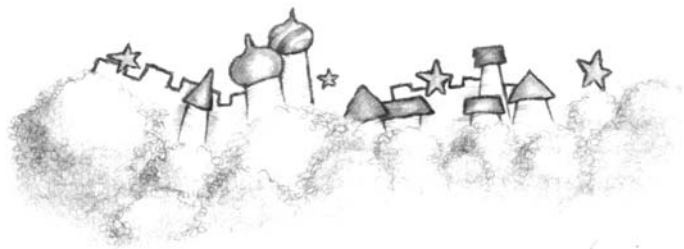
결혼기념일, 가족의 생일은 물론 나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기념이 될만한 날을 정해보 세요. 그리고 멋진 행사를 합니다. 물론 기념을 맞은 사람을 위해 나머지 가족들이 기쁘게 해줄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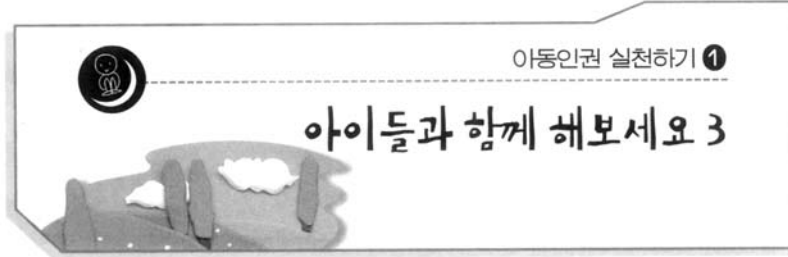
달력으로 만들어 표시해두면 멋진 가족 달력이 되겠지요



■ 마주그림그리기

- ① 두 사람이 한장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 ② 그림을 그릴때는 한사람에 하나씩 그리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그릴때 엄마가 머리, 아이들은 눈또는 코를 그린다.
- ③ 미술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면 아이들이 그림그리기에 부담이 없겠지요
- ④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가족이 커다란 전지에 그려도 된답니다. 소재와 크기는 상관없어요





■ 산가지놀이

산가지란 수를 셀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없었던 때에, 수를 셈하기 위하여 수수대, 싸리, 대나무 등을 매끈하고 짧게 깎아 사용하던 가는대를 말합니다. 이 산가지를 이용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하는 것을 산가지 놀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놀이방법

- ① 손에 쥘 산가지를 순간적으로 놓습니다.
- ② 머리를 모으고 숨을 죽여야 합니다.
- ③ 큰바람이라도 불면 얇은 산가지가 굴러 갑니다.
- ④ 정신을 모으고 하나 하나씩 가지를 가져갑니다.
- ⑤ 만일 건드리면 다른사람에게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 ⑥ 누가 많이 모았을까요~

아동인권 실천하기 ②

아이들과
함께 돌아보세요



안산의 생태공원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갈대등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처리식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써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인공습지이다. 이곳의 주요시설로 시화호 역사관, 자연생태과, 영상관과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공룡알 화석과 조류사진, 조류및 동물의 박제등을 관람할수있으며 전망대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각종 야생조류등을 관찰할수있고 온실에서는 수생식물의 생태와 열대지방의 희귀식물을 볼수있다.

이용안내 시간 : 오전 10시-오후4시 / 휴무 : 매주화요일 / 문의 : 419-0540

사동 협계면 생태공원

안산의 본오동과 사동을 가로질러 연결되어있는 수인선협계열차는 지금은 열차를 볼수없지만 철로와 주변에 다양한 식물들이 등지를 튼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민들레, 광대나물, 쇠뜨기, 질경이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곤충과 나비등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생태학습장이 될것으로 보인다.

위치안내 시곡중학교 건너편

★ 아이들과함께 하는 자연놀이

1. 내나무 찾기 / 2. 맨발로 걷기 / 3. 나뭇잎 탁본 / 4. 자연물로 만드는 장식물



늘 바쁜 아빠, 우리에게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엄마, 학원과 시험지에 파묻혀 사는 자녀들.. 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서로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가족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면 인권 교육도 되고, 더욱 가까워 지겠지요?

■ **가족회의 진행 방법**

- ① 먼저 진행자, 기록자를 정합니다.
- ② 다음은 회의시간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안건을 말합니다.
- ③ 안건에 대해 결정을 할때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거수 또는 종이에 써서 냅니다.
- ④ 회의가 끝나면 기록자는 그날 결정된 사항을 읽습니다.
- ⑤ 진행자는 다음 회의 날짜를 공고합니다.

■ **주의사항**

- 의견을 말할때는 반드시 진행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 회의를 할때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가족회의 일지

날짜		장소
참석한 사람		
안건	1. 2. 3.	
회의 내용		결정사항
다음회의 일시,장소		



아동인권 실천하기 ④

우리가족 인권지킴이 약속문 만들기



가족회의 시간을 통해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약속문을 만들어보세요

[그 외 아동인권 관련 단체]

1.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02) 741-5363 / <http://www.sarangbang.or.kr>

2. 지역별 YMCA 아동인권센터

① 대전 YMCA 아동인권센터 : 042) 472-3399 / tjymca@chollian.net

② 시흥 YMCA 아동인권센터 : 031) 315-4310 / shymca@cornet.net

③ 이천 YMCA 아동인권센터 : 031) 635-0887 / icymca@chollian.net

④ 춘천 YMCA 아동인권센터 : 033) 255-1001 / ymca0361@chollian.net

⑤ 진주 YMCA 아동인권센터 : 055) 747-0833 / cjymca@chollian.net

⑥ 군포 YMCA 아동인권센터 : 031) 453-8614 / ymca8614@chollian.net

⑦ 원주 YMCA 아동인권센터 : 033) 742-9997 / wjymca.or.kr

⑧ 광주 YMCA 아동인권센터 : 062) 654-4331 / iyymca.or.kr

3. **한국아동단체협의회** 02) 831-1930 / <http://www.kocconet.or.kr>

4. **한국어린이복지재단** 02) 336-5242 / <http://www.ilovechild.or.kr>

5. **한국 세이브더 칠드런** 02) 408-9798 / <http://www.savethechildren.or.kr>

6. **새롬 가정자원센터** <http://www.isaerom.com>

[관련자료 목록]

1. 도서 및 자료집

- ①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지음 / 내일을 여는 책 / 1997년
- ②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1997년
- ③ 인권교육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지음 / 사람생각 펴냄 / 1999년
- ④ 인권교육어떻게 할 것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음 / 오름 펴냄 / 2000년
- ⑤ 아시아의 인권교육 - 호주, 인도, 홍콩 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옮김 / 사람생각 / 2000년
- ⑥ 깨어나, 일어나
국제평화의 어린이회 지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옮김 / 사람생각 / 2000년
- ⑦ 모든 인간은
유네스코 지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옮김 / 사람생각 / 2000년
- ⑧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김중섭 지음 / 오름 / 2002년
- ⑨ 불보다 생명보다 귀한 선물
장수하늘소 지음, 강은경 그림 / 아이세움 / 2002년

⑩ 애들아, 인권공부하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엮음/사람생각 펴냄/2003년

⑪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 게임으로 알아보는 아동의 권리협약(아동의 권리협약 교사용 지침서)/1995년

2 논문

①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황성기/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1994년

②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이재연, 강성희/아동권리연구 창간호/1997년

③ 학생과 교사의 아동 청소년 권리 인식에 관한 연구

서정숙/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8년

④ 도덕교육을 통한 인권교육의 방향 모색: 초등도덕과를 중심으로

강시내/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0년

⑤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서정은/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1년

⑥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삶과 교육을 위한 대화와 실천 교육

사랑방 ·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2003년

· 아동인권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하승수 변호사

· 학부모의 눈으로 본 청소년(아동)의 권리/김정명신(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 학교현장에서 살펴본 아동의 권리/홍의표(서울 창신초등학교)

·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철학적 탐구/이병곤(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 ·

조우진(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 영상자료

- ①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 유니세프
- ② 우리가 다시 그려요 / 기독교 영상문화연구소

[해당분야전문가 및 활동가명단]

김영원(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홍의표(전교조 서울지부, 홍의초등학교), 장화정(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연구팀 팀장), 한지숙(숙명여대 아동복지학 박사과정), 김혜영(수원과학대학 사회복지학 교수), 김민애(굿네이버스), 황성미(대전 YMCA 아동인권센터 시민사업부 교육사업팀장), 박성희(안산YMCA 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2

청소년

2 청소년



청소년 인권교육은 가장 다양하고 활발하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다. 인권 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 마을주민회 등의 지역 차원의 주민회, YMCA 와 같은 시민단체, 청소년 동아리, 대안학교, 정부기관 등 많은 영역의 단체들과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 장애인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도 청소년으로 대상을 특화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인권 일반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소개하였다.

‘알럽, 휴먼 라이트즈’ 2001 청소년인권캠프

주 최 다산인권센터, 경기복지시민연대, 청소년 문화센터, 전교조중등지회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전화 및 팩스 : 031)213-2105 031)215-4395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rights.or.kr>

humandasan@hanmail.net

담당자 : 박진

기 간 2001년 8월 6일~7일

장 소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대 상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권교육상의 특징

『‘알럽 휴먼 라이트즈’ 청소년 인권캠프』는 크게 공동체 놀이, 또래 활동, ‘함께 배우는 인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동체 놀이와 또래 활동은 참가자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며 공존하는 경험과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함께 배우는 인권’은 ‘권력의 꽃’, ‘인권으로 이야기 만들기’, ‘청소년100분 토론’, 영상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얼어붙은 교실-악어의 강 건너기’, 사행시와 대안의 사다리 만들기로 다국적기업 문제를 알아보는 ‘나는야 인권지킴이’ 등, 모든 프로그램이 단순 지식전달 방식을 철저히 지양하고 참여형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인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길잡이식 교육으로 짜여져 있다.

프로그램

구분	시간	소요	내용	
	10:00	10:50	50	빈갑습니다. 여는마당
	10:50	12:20	30	공동체놀이1 - 너와 나 그리고 우리
	12:20	1:00	40	점심식사
	1:00	3:00	120	또래활동1(자기소개, 별칭짓기, 아름다운 나, 조이름 · 조구호 · 조울동, 공동작화)
제1일	3:00	4:00	60	함께 배우는 인권1(인권, 너의 정체를 밝혀라)
	4:00	6:00	120	미니올림픽
	6:00	7:00	60	저녁식사
	7:00	8:30	90	함께 배우는 인권2(인권웃놀이, 인권이야기 만들기)
	8:30	10:30	120	공동체놀이2 - 자, 이밤을이밤을...
	10:30			취침
	7:30	8:00	30	일어나세요. 산책!
	8:00	9:00	60	아침식사
	9:00	10:00	60	또래활동2(숫! 온몸으로 표현하기)
제2일	10:00	11:50	110	함께 배우는 인권3(청소년 100분토론, 얼어붙은교실-악어의 강 건너기)
	11:50	1:00	70	점심식사
	1:00	3:00	120	함께 배우는 인권4(나는야, 인권지킴이)
	3:00	4:00	60	또래활동3(롤링페이퍼, 조별 마무리)
	4:00	4:30	30	총평가 및 닫는마당

[또래활동1 _이름다운 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
는 것은?

요즘 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빛나는 보석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 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는?

올해 이루고 싶은,
소망 한가지는?

함께 배우는 인권 1 : 인권,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인권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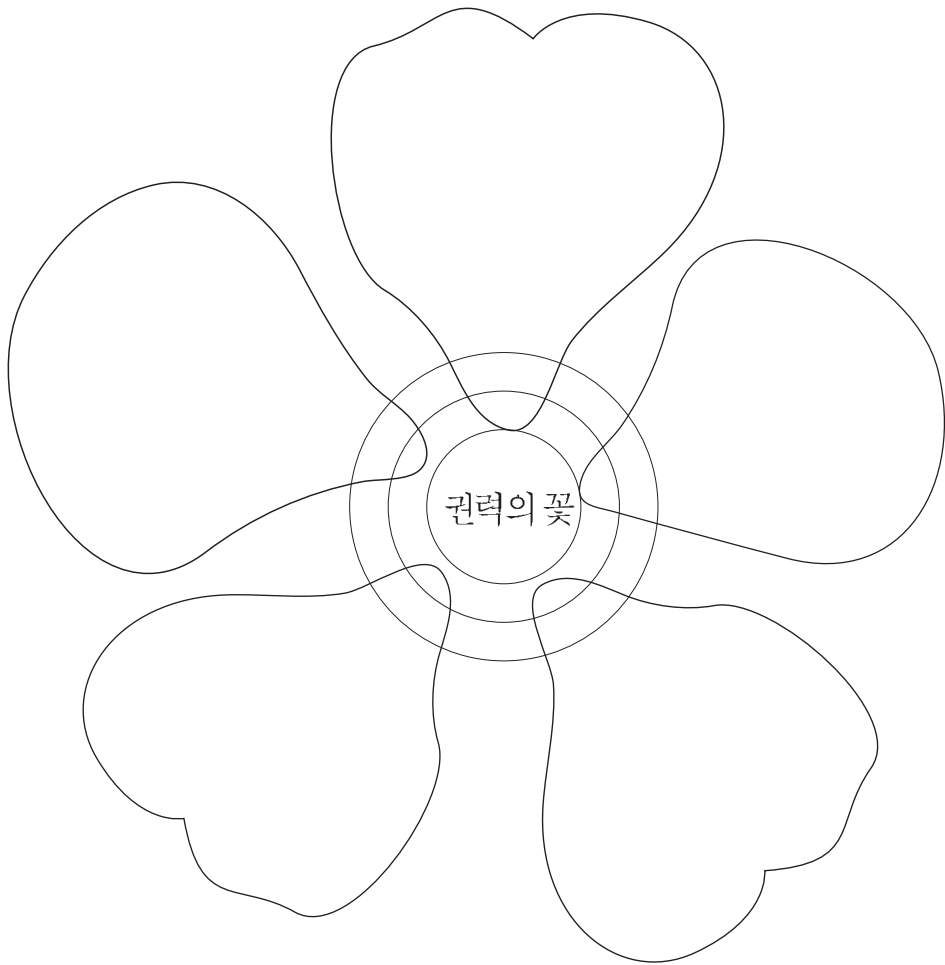
인권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 딱 뭐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요, 인권은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지키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예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혹,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말 대꾸야?’ 라는 꾸지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기분이 참 안 좋죠. 하지만 마땅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게 다루려고 대접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무시되고 차별 받았을 때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아프답니다. 자,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볼까요. IMF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더니 노숙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철 역에서 백일 된 아기가 집 없는 부모와 함께 찬 바람을 맞으며 잠을 잔다는 기사가 실렸 습니다. 아, 불쌍해라.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도 저 아기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이런 생각은 참 소중합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귀하게 대접 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바로 인권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간단한 것을 깨닫기 까지 인류는 정말 긴 세월을 써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자기 뜻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만 세상을 유지하고 싶어했으니까요.. 중세 시대의 왕, 봉건시대의 영주, 조선시대의 양반, 군사독재시절의 독재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자기는 돈을 많이 가졌 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주는 월급 한푼은 별별 떠는 나쁜 자본가들도 그렇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라는 것이 옳바르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특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자기나라에서 쫓겨나고, 폭력과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인권을 위한 약속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인권으로 하자’ 라는 것이었죠. 비록 그 약속이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실질적인 힘을 가진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권을 위한 약속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늘 변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런 약속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란 것이예요.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과 함께 세계의 3대 권리장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시간을 내더라도 이 중요한 세계인권선언을 쭉쭉 한번 읽어보 세요. 그리고 선언이 말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고민해보세요. 알았죠?

[권력의 꽃 : 인권의 가치에는 뭐가 있나요?]



[그밖에 : 인권의 가치에는 뭐가 있나요?]

인권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인권의 가치라고 이름 붙여볼까요?

생명>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말에 동의할 꺼예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모든 인권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자유>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자유'는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예측과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평등>

차별에는 남녀, 장애인, 인종차별 등이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의>

모든 사람이 골고루 권리를 누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권은 늘 '정의'를 고려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교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인간적인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은 '사법정의'에 해당하겠죠.

연대>

약자의 편에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주장하고 돕는 것, 이런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려는 노력은 인권보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기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채택한다면 그건 전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억압과 강요를 통한 갈등 해결도 나쁩니다. 평화는 서로의 다른 점을 '차이'로써 인정하는 인정과 존중의 정신입니다.

민주주의>

우리 청소년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의 상호성>

우리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를 생각해야한다.

자연과의 조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지고, 많은 종의 식물과 동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물과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죽이는 것이죠. 자연과의 조화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답니다.

[함께 배우는 인권 2: 인권으로 이야기 만들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인권선언을 연구해 봅시다.

■ 춘향전 중 변사또의 수청을 춘향이 거절하는 장면



여섯번째 마당 수청 거절

..... 춘향이 어쭙오대,
.....
..... 중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 일너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고
..... 절개를 지킨다 맘을 본받고지 미웁는데,
..... 수적로 분부가 이러이오니 시는 것이 죽느니만 못미웁고
..... 정절이 있는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못이오니
..... 저분대로 미웁소서.

■ **줄거리:** 춘향아씨는 몽룡도령과 사랑을 했지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신분의 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결국 둘 사이의 사랑이 용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몽룡도령은 내일을 기약하며 한양으로 떠나고.. 춘향아씨는 신관 사또 변모씨에게 수청을 강요당했다고요.. 하지만, ~

■ **선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춘향아씨, 당신의 권리는 무엇 무엇이 있으니 꼭, 인권을 지키시오'라고 말하면서 선물할 권리가 있을 꺼예요. 세계인권선언에서 선물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는? (교재 뒤에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참조하세요)

특별활동

그렇다면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계인권선언 선물하기를 해 볼까요. 예를 들면, 영화 타이타닉, 만화 '꽃 보다남자' 등등이 있겠죠.

함께 배우는 인권 3-1 : 청소년 100분 토론

청소년 문제를 왜 우리에게 묻지 않죠?
어른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① 두 개의 주제를 각각 상반된 입장으로 나누세요.
- ② 한 개의 조가 또는 두 개의 조가 자신에게 배당된 주제와 입장을 부여받고,
- ③ 자신들의 주제,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보는거예요. (논리를 만들 때는 반대 입장의 논리를 예상하고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질문을 몇가지 뽑아야겠지요.
- ④ 조의 입장을 정리한 후 청문회에 참여할 인원을 2명 뽑습니다.
- ⑤ 자신들에 해당되는 주제에 나서서 토론을 벌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는 정리를 각 조의 대표가 해야 합니다.
- ⑥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조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토론에 판정을 해줍니다.

주제 1. 아이노스쿨 폐쇄조치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폐지되는 사건이 생겼다. 이 중에는 자신의 알몸사진을 게재한 미술교사의 홈페이지, 폭탄사이트, 자살사이트 등이 있다. 물론 동성애자들의 동호회들도 폐쇄되고 있다. 오늘은 아이노스쿨이라는 자퇴생들의 모임(www.inoschoolnet)의 폐쇄를 가지고 논쟁을 벌어보자.

<참고자료>

'청소년끼리 학교생활상담' 지나친 비판 자퇴 선동 우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학교를 비판하고 학생들의 자퇴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자퇴생들의 모임 사이트인 '아이노스쿨'(noschoolnet)을 폐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노스쿨 회원들은 11일 "윤리위가 전기통신사업자 엘리트네트에 공문을 보내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노스쿨은 청소년끼리 학교 생활에 대해 상담하고, 학교 교육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장소로 활용돼 왔다"며 "이미 방문자수가 2만명을 넘는 이 사이트를 사전 통보없이 폐쇄한 것은, 윤리위가 자퇴생을 문제아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아이노스쿨에 올라온 글들의 불온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학교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자퇴를 선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윤리위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가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점도 사이트 폐쇄를 결정하게 된 이유의 하나"라며 "법에 규정된 대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며 사이트 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cokr <한겨레 2001-06-12 09면 (경제) 04판 뉴스 664자>

주제 2. 성매매 청소년 처벌 어떻게 바리볼 것인가.

원조교제라는 문제가 급격하게 사회문제화 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어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론의 가치도 없다. 그렇지만 청소년성매매는 단속을 피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여보자

<참고자료>

앞으로 청소년성매매(속칭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도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성인과 함께 청소년을 혼숙시킨 숙박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6일 청소년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윤락행위를 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방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청소년 성보호법 13조1항을 윤락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키로 했다"며 "최근 청소년의 성매매가 전문윤락수준으로 발전하고 재범률도 지극히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청소년끼리의 이성혼숙에 대해서만 숙박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 성인과 청소년이 혼숙할 경우에도 숙박업주를 처벌토록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성민우회 정강자 상임대표는 “쌍방치벌은 미성년자보호라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며 청소년 성매매의 상대 성인에 대한 신분공개 등 수요자 처벌강화가 기본”이라며 검찰의 개정방안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한국일보 2001-06-07 29면 (사회) 42판 뉴스571자

[함께 배우는 인권 3-2 : 얼어붙은 교실 - 악어의 강 건너기]

영화를 보고 난 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 봅시다.

①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섯 부류로 나누어보겠습니다.

■ 최재호 ■ 최재호 친구 ■ 옥주혁 ■ 방관하는 친구들 ■ 선생님

② 이들 중에서 가장 잘못된 사람이 누구지 투표를 해봅시다.

③ 투표결과에 근거해서 가장 잘못된 사람을 순서대로 정하는데 각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순서를 정해보는 거예요.

④ 꼭,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투표과정에 동점자들이 있다면 다시 그 순서만을 가지고 토론해서 순서를 정해야해요.

⑤ 조의 입장을 정리한 후 발표할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모두 모여서 발표해봐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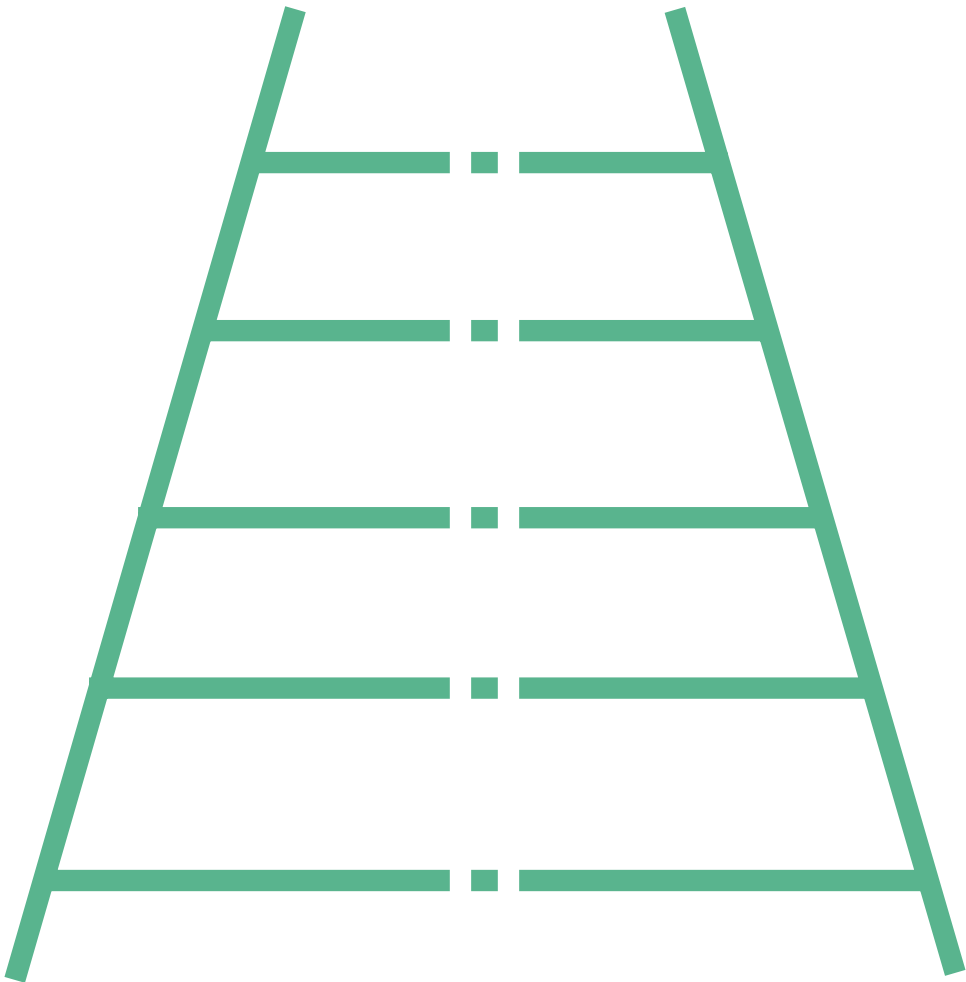
이유

활동 2: 대안을 마련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봅시다.
완성된 사다리를 우리는 대안의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이쪽 편에는 인권의 문제(침해되는 권리가 있다면)를 적으세요.

이쪽 편에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사다리가 이어지면, 우리 주변의 인권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해결과 평화, 인권

주 최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

주 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전화 및 팩스 : 02)2275-4860 02)2275-4861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peacewomen.or.kr>

wmp@peacewomen.or.kr

담당자 : 조영희 팀장

기 간 2002년 3월~현재

장 소 서울 관악고등학교, 이대부중 등

대 상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권교육상의 특징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2002년 역삼중학교 1학년 2개반을 대상으로 창의재량수업 시간에 ‘평화문화 이해와 갈등해결법 배우기’ 수업(1시간 10회)을 진행하였고, 2003년에도 관악고등학교, 이대부중 등에서 창의재량 수업과 CA반을 통해 갈등해결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일회성 강좌가 아니라 6회차, 10회차 등 부분적이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하였고, 학생들과 늘 함께 생활하는 교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파견된 교사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는 하였지만, 학생들과 관련 교사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교육방식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청소년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교안집 中

● 1부 - 평화, 갈등 개념 이해

갈등이란 무엇인가/ 갈등의 다양한 종류/ 갈등의 원인/ 계단식 정보전달 놀이/ 갈등 그림 그리기/ 갈등 표현하기/ 갈등 브레인 스토밍/ 갈등 거리재기/ 색깔논쟁/ 양파를 벗겨라

● 2부 -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평화적 갈등해결이란/ 갈등해결의 기본 관점/ 갈등해결의 과정/ 나는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럴 때 나는/ 손등을 뒹어봐/ 소가 필요해/ 의자 뒤에 세워보세요/ 의자 옮기기/ 갈등을 어떻게 표현할까/ 나누는 대화, 즐거운 대화/ 이럴땐 이렇게

● 3부 -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구성요소/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귓속말 전달/ 만칭하기/ 이야기를 전해줘/ 들은 대로 그리기/ 그림보고 말로 전달하기/ 좋은 대화, 나쁜 대화/ 느낌 표현하기/ 좋은 대화 실습/ 나를 중심으로 한 화법

● 4부 - 분노조절

분노는 일시적이므로 우리들은 분노를 다룰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분노/ 분노 마주하기/ 신체반응 살피기/ 소방대 놀이/ 뚜껑은 언제 열리나/ 분노조절 방법 찾기

● 5부 - 편견의 극복

편견과 차별없는 공존의 삶/ 차이 발견 빙고게임/ 변신 파티/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권리의 꽃을 피워라

● 6부 - 프로그램 시작과 평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탕놀이/ 실타래 던지기/ 번개게임/긍정·부정·개선을 위한 제언/ 산오르기/ 사랑 고백하기



청소년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교안집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프로그램에

제 목	1. 나는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갈등대응유형 알아보기
적용영역	갈등해결방법
목 표	1. 갈등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인 대응유형을 객관화해본다. 2. 관계와 자신의 이익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변화를 모색해 본다.

	진행과정	소요시간	준 비 물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가자들에게 대응유형 조사지를 나눠준다. 2. 조사지에 참가자들이 각자 표시를 하게 한다. 3. 점수산정표에 각각의 결과를 적게 하고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점수와 유형을 적게 한다.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이 일반적인 자신의 갈등에 대한 대응유형이다. 4. 갈등대응유형 그래프가 그려진 전지를 벽 또는 칠판에 붙인다. 5. '차분'과 '고조'의 색깔이 다른 색카드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준다. 6. 두 색 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 하여, '차분'과 '고조'일 때 자신의 유형의 칸에 붙이게 한다. 7. 유형별로 모둠을 만들어서 그 유형의 장점 세 가지와 단점 세 가지를 토론하여 정리하게 한다. 8. 각 유형별로 발표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유형별 특성을 정리한다. 	25분	유형조사지 (별첨1) 갈등유형그래프 (별첨2) 색카드
짚어야 할 점	일반적으로 유형별 특성 정리: 별첨 3		
비 고	<p>** 조사지를 쓰는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조사는 개인간 갈등대응유형을 알아보는 것으로 어느 유형이나 장단점이 있음을 알게 하고, 조사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한다. 2. 각 문항에 대해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의 태도, 반응'을 표시하도록 한다. 		

(별첨1)

개인의 갈등 대응유형에 관한 조사 자료

다음은 여러분이 친구와 의견차로 다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친구와 당신의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완성하십시오. 우선, '가-바'는 친구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즉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나의 첫 반응입니다.

다음, '사-타'는 친구와 의견차가 더 커졌을 때, 즉 친구와 갈등이 커져 감정이 격해질 때 보이는 나의 반응입니다. 만약 머릿속에 떠오르는 갈등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반응이 어떤지를 고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숫자에만 ○ 표시를 하십시오.

1) 친구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나는...

문항	질 문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많이 그런 편이다
가	친구와 의견이 달라 다툼 때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친구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1	2	3
나	친구와 의견이 항상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주장을 분명히 하려고 애쓴다.	1	2	3
다	친구와 의견이 다르면 불편하므로 주로 피하는 편이다.	1	2	3
라	친구에게 내 주장을 밝히는 만큼 친구의 의견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마	친구의 의견보다 내가 주장하는 의견이 더 옳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바	친구와 의견 차이가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1	2	3

※ 갈등이 처음 인지되었을 때의 반응 결과('차분' 상황)

점수	가:	나:	다:
	라:	마:	바:
계			
대응유형	협동	경쟁/대립	회피

점 수	대응 방식

프로그램에

2) 만약 이견이 지속되거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문항	질문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많이 그런 편이다
사	친구와 의견이 달라 다를 때 내 의견과 친구의 의견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아	친구의 입장이나 기분을 생각하기 보다 친구가 내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는 편이다.	1	2	3
자	친구에게 내 주장을 강요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주로 물러선다.	1	2	3
차	내가 친구의 의견을 받아주는 만큼 나의 의견도 친구가 받아들여도록 노력한다.	1	2	3
카	우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나중에 생각하는 편이다.	1	2	3
타	친구와 직접 부딪치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다.	1	2	3

※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더 고조되었을 때의 반응('고조' 상황) 결과

점수	사:	아:	자:
	계	차:	카:
대응유형	협동	경쟁/대립	회피

점수	대응 방식

ㄱ 보충 설명

이번 조사 자료는 각각 두 개의 상황에 세가지 대응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분**에 해당되는 점수는 이견이 처음으로 나타날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을 표시하고 있고, **고조**에 해당되는 점수는 의견차가 잘 해소되지 않고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점수가 높은 방식이 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방식이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전 방식에 걸쳐 점수가 비슷하다면 갈등대응에 있어 어느 특정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Mennonite Conciliation Service Mediation and Facilitation Training Manual : Foundations and Skills for Constructive Conflict Transformation (4th Edition) p. 64-66.

(별첨2) 대응유형그래프



(별첨3) 대응유형별 특성

경쟁대립형(Competing)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목표를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경쟁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 유형은 승패를 확실하게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어도 개의치 않고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즉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상대방을 압도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회피형(Avoiding)

갈등상태에서 얻게 되는 장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갈등상태에 대처하려 하지도 않는다. 문제가 있어도 없는 듯 무시하거나 회피한다. 즉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마저 무시하는 유형이다.

협동형(Collaborating)

이 유형은 개인간의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갈등의 해결은 정직한 상호토론과 협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쌍방 모두의 관심사와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서로의 목표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짚고 넘어가기+ : 갈등대응유형은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타인과의 관계와 자신의 목표가 어떤지에 따라 다양한 갈등대응유형이 나올 수 있다.

자신, 상대자의 갈등대응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갈등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기 위해서이다. 관계가 일시적이고 자신의 목표도 그다지 높지 않다면 회피하거나, 양보의 전략을 쓸 수도 있겠고, 그것이 더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관계 속에 있는 갈등이라면 각각 상대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입장과 이해,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협동적으로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협동적 문제해결이 가장 만족의 총량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적 문제해결로 자신의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제 목	2. 이럴 때 나는?
적용영역	갈등해결의 방법
목 표	1. 갈등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갈등대응유형을 알아본다. 2.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평화적 해결방법을 익히게 한다.

	진행과정	소요시간	준 비 물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먼저 갈등대응유형별로 모둠을 정한다. (한 모둠이 5명을 넘지 않게 한다) 2. 준비된 상황시나리오를 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 잠깐 생각하게 한다. 3. 각 모둠별로 토론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모두 참여하여 공통의 의견을 모아 전지에 정리한다. 4. 각 모둠별로 발표하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의논한다. 	20분	시나리오 (별첨) 전지, 매직
깊어야 할 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갈등해결이란 평화적 해결을 말한다. 2. 어느 한 쪽의 욕구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한다. 		
비 고			

프로그램에

<별첨>

<예문 1>

동생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와 싸워서 얼굴에 긁힌 자국과 팔에 멍이 들어 들어왔다.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문 2>

집에 오는 길에 골목에서 한 중학생이 고등학생 예닐곱 명에게 둘러 싸여 곤경에 처해 있다.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예문 3 >

밤에 길을 가는데 한 젊은 아가씨가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목	3. 손등을 누어봐!
적용영역	갈등개념 이해, 갈등해결 이해
목 표	1. 갈등이 생기는 과정을 이해한다. 2. 서로 대립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상대와 협력해서 원하는 이익을 평화롭게 얻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진행과정	소요시간	준 비 물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가자들을 둘 씩 짝지어 앉게 한다. 2. 서로 손을 마주보고 오른손을 맞잡게 한다. 3. 이 놀이의 규칙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게임은 30초 동안 맞잡은 상대의 손등이 책상에 닿게 하는 것으로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사탕을 많이 받을 수 있다. 4. 30초가 지나면 하던 동작을 멈추게 한다. 5. 참가자들에게 몇 개의사탕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본다. 예) 한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섯개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 10개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6.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를 질문해 본다. 7. 참가자들의 대답에 기초해서 이 놀이가 어떤 놀이인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한다. 	15분	사탕, 초콜릿 등 상으로 줄 것
짚어야 할 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놀이는 처음 규칙을 설명하면 외형상 혼히 알고 있는 팔씨름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의 여지없이 ‘시작’소리와 함께 팔씨름을 하기도 한다. 이는 또 한편 일상적으로 문제, 갈등 앞에서 바로 경쟁적인 자신의 태도가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2. 목표와 이해 관계가 같은 갈등이라도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탕 또는 초콜릿을 꼭 준비해서 처음 놀이를 할 때 보여주면 놀이 참가 의지를 높일 수 있다. 2. 놀이가 끝나면 약속했던 대로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사탕을 나눠준다. 		

프로그램에

제 목	4. 소가 필요해(소협상)
적용영역	갈등해결 방법(협상)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상은 상대의 요구를 찾는 것이라는 협상의 개념과 원칙을 이해하도록 한다. 2.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경험해 본다.

	진행과정	소요시간	준 비 물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행자는 먼저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협상하면 무엇이 떠오르지요?” 2. 참가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협상의 유형에 대해 설명한다.(협상의 정의와 유형 별칭) 3. 참가자들을 두 모둠으로 나눈다. 4. 한 사람은 강원도의 김씨 역할을, 또 한 사람은 부산의 이씨 역할을 가지고 자유롭게 앉아서 소를 사기 위한 협상을 5분 동안 하게 한다. 5. 5분 뒤 협상을 끝내고 결과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6. 협상이 안 된 팀은 왜 안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본다. 	20분	시나리오(별첨)
짚어야 할 점	<p>소 협상을 통해 양과 기법의 입장과 요구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김씨와 이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만 하면 그 다음 나누는 문제는 다른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즉 상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나의 요구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p> <p>일반적으로 협상을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서 경쟁적 협상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의 요구를 찾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삼는다면 자신의 요구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한다.</p>		
비 고	별첨 : 협상의 정의와 유형, 소협상 시나리오 첨부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을 따라 떠나는 여행학교

주 최 생태학교 '시선'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life-peace.or.kr/ecoschool>

ecosisun@yahoo.co.kr

담당자 : 유병희, 홍숙경

기 간 2004년 1월 6일~17일(11박 12일간)

장 소 서울 - 동두천 - 철원 - 정선 - 공주 - 부안 - 지리산 등 전국 곳곳

대 상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목 적

“민주주의는 일부러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학교에서는 민주주의 교육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져요. 학생들에게 경쟁의식만을 부추길 뿐 소외와 차별의 극복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끼워 넣는 생색내기 교육이지요. 소외와 차별을 극복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오히려 소외와 차별을 극대화 시키는 무한 경쟁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깐 어찌면 학교는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게 하는 훈련장이지 진정한 교육의 장은 아니지요. 사회가 위에 얘기한 것처럼 어두운 현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어둠과 부패를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의 희망이지요. 이번 여행의 여정은 그런 어둠과 빛을 함께 바라보고 찾아보고 들어가 보는 과거-현재-미래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여행이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함께 잘 돌아보는 여정이길 바래요.” - '생태학교 시선-인권찾아 삼천리' 자료집 中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나, 너, 우리, 자연, 세상, 그리고 우주와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세상과 현실에서 만나는 세상간의 거리감을 느끼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장이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의 생명과 평화에 대해 직접 현장체험을 통해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준다.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참가원칙이 ‘모든 생명에 대한 공경심 가지기’, ‘주체적이기’, ‘공동체적이기’, ‘긍정적, 낙관적이기’, ‘네 덕, 내 탓이기’, ‘생태적이기’ 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자기 내면의 수양에서 출발해 서로의 관계와 사회의 모순, 친환경적인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첫째날 : 인권아, 학교 열자!

때	곳	끼니	들	속	준비
늦은 3시~	숙소	해먹기	모여라, 학교가자!	서울집결, 숙소로 이동	여행학교 피켓 참가자명단 인솔교사 나누기
늦은 4시	숙소 불교 인권위		누가, 누구? 찬해지기	자기 소개하기, 얼음장 깨기, 모둠 나누기, 학교일정 보기, 생활 규칙 나누기, 이동권리 조약 알아보기	자료집, 이름표, 전지, 풀 테잎, 크레파스, 질문지 얼굴그릴 종이 필기도구 의자 또는 방석(30개)
저녁 6시	숙소	해먹기	저녁 밥 해먹기		
저녁 7시			작은 인권이야기	생활 속의 인권 침해 이야기 - 도시디자이너	필기도구
밤 9시			버스 꾸미기	프랭카드 만들기(2장)	현수막, 크레파스, 줄 테이프, 물감
밤 10시			하루 재기 잠잘 준비	내일 일정 명상, 일기 쓰기	외국인 노동자센터 모둠별 방문 지역 정하기

둘째날 : 일하는 사람들

때	곳	끼니	들	속	준비
이른 7시	숙소		하루 열기!	명상, 기체조, 이침 해 먹기, 외출 준비	필기도구, 카메라, 식수 활동비, 자료집
이른 9시	창신 청계천		우리나라 노동인권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회, 분신자리, 봉제공장 이소선어머님과과의 대화	모둠별 이동 전체 이야기
늦은 1시	청계천 시장	사먹기	점심 먹기	시장에서 사먹기	모둠별
늦은 2시	명동성당		농성장 방문	이주노동자 농성장 방문	전체
늦은 5시	인산		외국인 티운	인산 국경없는 마을	전체 / 간단한 저녁

때	곳	끼니	들	속	준비
저녁 7시	인산 일산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각 모듬별로 이동 외국인노동자 만나기	모듬별/ '사선' 남기기
밤10시	숙소 자비 의집		하루 재기	모듬별 하루 나누기 일정 정하기(서대문, 상도동), 명상, 일기 쓰기	전체

셋째날 :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들

때	곳	끼니	들	속	준비
이른 4시	남대문		새벽시장	인력시장, 야시장 둘러보기 노숙자(서울역)	전체 /야시장먹거리 따뜻한옷, 활동비
늦은 11시	숙소	해먹기	늦은 잠자기 아점 먹기	아점 해먹기 간식 만들기(저녁)	전체
늦은 12시	숙소		하루 일정 살피기 모듬별 출발	상도동철거촌 서대문형무소	모듬별이동 체험
늦은 4시	혜화동		장애인인권	노들아학 방문 '버스를타자' -감독 과의 대화 장애인이동권 연대 와의 대화	3시30분까지 전체 모이기 간식 나눠먹기
밤7시	혜화동		서명운동하기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전체 / '사선' 남기기
밤10시	숙소 자비 의집		하루재기	내일 일정 정하기 모듬별 하루 나누기 일기쓰기	자료집 부촌 모듬별 지역 정하기

넷째날 : 높은 담벼락 속에 사는 사람들

때	곳	끼니	틀	속	준비
이른 7시	숙소 (서울)		하루 열기!	명상, 기체조 밥해먹기, 외출 준비	필기도구, 카메라, 식수 활동비
이른 9시	서울일대		잘 산다는 것?	성북동평창동압구정 청담동-부촌 돌아보기	전체 버스로 이동
이른 11시	구피발역		모이재	보광사로 이동	전체
늦은 12시	보광사	공양	점심먹기	공양하기	
늦은 1시			영상물 보기	미선이, 효순이 영상물 보기, 추모 예식 준비	사건 설명 꽃 만들기, 편지쓰기
늦은 4시	동두천		미선이, 효순이 추모	미선이, 효순이 추모 예식	전체 꽃, 추모글, '사선' 남기기
늦은 6시		공양	저녁 공양		
밤 9시	동두천		모듬 선택활동	아간 동두천 기지촌천 돌러보기, 열사묘역, 노동당사방문 준비	
밤 11시	보광사		하루 재기, 서울 일정 마무리	하루 나누기 명상, 일기 쓰기	전체/자료집

다섯째날 : 세상의 빛을 만나서 통일을 꿈꾸다

때	곳	끼니	틀	속	준비
이른 7시	보광사	공양	하루 열기!	명상, 기체조 아침 공양	전체 버스로 이동
이른 9시	마석		모란공원	세상의 빛, 민주열사 묘역, 추모하기	전체 / '사선' 남기기 모듬별 추모하기
늦은 12시		도시락	점심		이동중 치안 도시락먹기
늦은 2시	철원		통일을 보다 (3시간 소요) 철새 도래지	노동당사/제2땅굴 / 월정리역/비무장지대/ 통일관광안내문 만들기	전체 / '사선' 남기기

때	곳	끼니	들	속	준비
늦은 6시		휴게소	저녁	휴게소에서 먹기	
밤 8시	원주살레시오의집		중간 점검 난상토론	누리의 장애인권 이야기	전체 자료집
밤 10시			하루재기	내일 일정 정하기 명상 일기 쓰기	자료집

여섯째날 : 더불어 살기

때	곳	끼니	들	속	준비
이른 7시	원주		하루 열기!	명상, 기체조, 밥 먹기(식당)	
이른 9시			더불어 살기	살레시오의 집 둘러보기 봉사하기	모둠별 / 전체
늦은 12시			점심	밥 먹기(식당)	
늦은 5시			명상하며 걷기 잠시 쉬기	배론성지까지 걷기 봉쇄 수도원 둘러보기 허브농원 둘러보기 저녁놀이 준비	모둠별
늦은 6시			저녁	밥 먹기(식당)	
밤 8시			놀이	살레시오집 식구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기	전체 / 장기자랑
밤 10시			하루 재기	나눔의집 방문 준비 명상, 일기 쓰기	전체 / 자료집 꽃 만들기 / 노래연습

일곱째날 : 성노예로 산다는 것은

때	곳	끼니	들	속	준비
이른 7시	원주		하루 열기!	명상, 기체조	
이른 7시반	원주		아침 먹기	밥 먹기(식당) 나눔의 집으로 이동	전체
이른 9시	광주		나눔의 집 도착	짐 풀기	전체
이른 10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비디오 보기 역사관 관람	전체

때	곳	끼니	들	속	준비
늦은 12시		해먹기	점심 먹기	밥해먹기	
늦은 1시			할머님과 대화	증언 듣기 전체 할머님께 세배 올리기	
늦은 5시	평택		기지촌	평택 일대 마군기지촌 돌아보기	모둠별 돌아보기
늦은 7시			저녁	공주로 이동하는 휴게소 아니면 늦은 저녁 해먹기	
밤 10시	공주		충남 교육 연구소	짐 풀기, 외출준비	
밤 11시	대전 유성 공주		밤거리 체험 하루재기	유성 유흥가 둘러보기 대전 흥등가 둘러보기 내일 일정 정하기 명상, 일기 쓰기	코스별 이동 나눠서 보기

여덟째날 : 하루쯤 숨고르기

때	곳	끼니	들	속	준비
이른 12시	공주	해먹기	하루 (늦게) 열기!	명상, 기체조 늦은 아침 먹기	
늦은 1시	마을 여기 저기		충남교육연구소 위탁 프로그램	어르신 모시기 새끼 꼬기 농촌 소일거리 체험	모둠별 또는 하고 싶은 것 선택
늦은 4시	뫼산		산이랑 놀기	토끼몰이, 눈썰매타기	전체
늦은 6시		해먹기	저녁 먹기	밥해먹기	
밤 7시	운동장		모닥불 놀이	고구마구워먹기	
밤 8시	학교안		우리사랑 할까요?	평등한 사랑을 위한 성교육 나눔	
밤 11시	학교안		하루 재기	내일 일정 나누기 명상, 일기 쓰기	

이튿날 : 생명과 평화

때	곳	까니	들	속	준비
이른 7시	숙소	해먹기	하루 열기!	명상, 기체조 밥 해먹기	전체 / 버스로 이동
	버스안		영상물 보기	새만금 or 반핵폐기장	영상보기
이른 11시	부안		생명과 평화	문규현 신부님 만나기	
늦은 12시	성당		점심	밥 먹기	
늦은 1시	격포		애 새만금 위도 지키기 위도 둘러보기	새만금 둘러보기 위도 지킴이와의 대화 5시 배로 나오기	전체 2시 배타기
늦은 7시	성당		저녁	밥 먹기	
밤 8시	부안 수협		핵없는 세상 위해	반핵 영상보기 촛불시위 참가	전체
밤 10시	숙소 돈지 공소		하루 재기	내일 일정 나누기 명상, 일기 쓰기	자료집

열째날 :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때	곳	까니	들	속	준비
이른 7시	부안 성당		하루 열기!	명상, 기체조	
이른 8시	공소	해먹기	아침 먹기	아침 해먹고 점심 도시락 싸기	
늦은 12시	하동		쉬어가기	매암차문화박물관, 차한잔 나누기	전체
늦은 1시반	박물관	도시락	점심 먹기	박물관에서 도시락 먹기	
늦은 3시반	함양		녹색으로 가는 길	녹색대학 둘러보기 4·3행쟁, 양민학살 관련 영상물 보기 감독과의 대화	전체
늦은 6시	녹색대학		저녁 먹기	식당에서 밥 먹기	
밤 7시			이야기 한마당	한광용 교수님의 잃어버린 인권 이야기 인권게임	전체
밤 10시	숙소		하루 재기	명상, 일기 쓰기	전체

열하루째날 : 무엇을 위해 죽어, 죽어

때	곳	끼니	틀	속	준비
이른 8시	녹색대학		하루 열기! 아침 먹기	명상, 기체조 식당에서 밥먹기	전체 / 버스روی동
이른 10시	녹색대학		지리산에 숨겨 진 역사 이야기	시인에게 듣는 빨치산 이야기 빨치산 어르신 이야기	전체
늦은 12시			점심 먹기	식당에서 밥먹기	
늦은 3시	산청		산에서 올리는 총성	산청 양민학살참배 유족 증언듣기 외공마을 학살현장 오르기	전체 / 위령제
늦은 6시	실상사	공양	저녁 먹기	공양하기	
늦은 7시			별들에게 물어봐	별자리 이야기 듣기	전체 / 찜질팩
밤 9시	실상사		하루재기	내일 일정 정하기 명상, 일기쓰기	자료집

마지막날 : 세상의 씨앗이 되어

때	곳	끼니	틀	속	준비
이른 6시반	실상사		하루 열기!	명상, 기체조	
이른 7시		공양	아침 먹기	공양하기	
이른 9시			'나'를 돌아봐	노고단 오르기	전체
이른 12시	실상사	공양	점심 먹기	밥해먹기 or 공양	
늦은 1시			작은 잔치	물건 나누기 서로에게 한마디 전체 기념물 만들기	전체 연락처 주고받기
늦은 3시			헤어짐	기념사진 찍기	전체

[그 외 청소년 인권교육 관련 단체]

1.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02)741-5363 / <http://www.sarangbang.or.kr>
2.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http://www.rights.or.kr>
humandas@hanmail.net
3. **마들 창조학교** 02)938-2609/madlejumin.netian.com
madleadong@korea.com
4. **서울 YMCA 청소년 사업부** 02)734-3934/ <http://www.ymca.or.kr>
hyuk0630@hanmail.net
5. **중고등학생 복지회** <http://member.hitel.net/~k2sws>
6. **청소년인권동아리 타래** <http://home.freechal.com/tarae>
7. **울산인권운동연대** 052)242-1119/ <http://www.ulsanhr.or.kr>
hrulsan@hanmail.net
8.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02)735-2315/ <http://www.unicef.or.kr>
unicef@unicef.or.kr
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02)755-1105/ <http://www.unesco.or.kr>
10.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 02)755-1024/<http://www.mizy.net>
11.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위원회** <http://www.koreayc.or.kr>

[관련자료 목록]

1. 도서 및 자료집

- ①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원/1992년
- ② 새로운 학교 큰 교육 이야기
대안교육을 생각하는모임/내일을 여는책/1995년

- ③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지침
유엔인권센터 지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 / 1995
- ④ 인권교육의 기법 : 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 자료집 국제엠네스티 저, 이용교,
이희길 공역 / 한국청소년개발원 / 1996년
- ⑤ 청소년 인권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외 지음 / 인간과복지 펴냄 / 1997년
- ⑥ 청소년의 권리
최윤진 편저 / 양서원 / 1998
- ⑦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4
하승수 외 / 사계절 출판사 / 1999년
- ⑧ 인권교육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지음 / 사람생각 펴냄 / 1999년
- ⑨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음 / 오름 펴냄 / 2000년
- ⑩ 아시아의 인권교육 - 호주, 인도, 홍콩 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옮김 / 사람생각 / 2000년
- ⑪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 21세기 학교만들기
조한혜정 / 또하나의 문화 / 2000년
- ⑫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배경내 / 우리교육 / 2000년
- ⑬ 평화 · 인권 · 교육
강순원 / 한울 / 2000년
- ⑭ 모든 인간은
유네스코 지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옮김 / 사람생각 / 2000년
- ⑮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집 2
권혜진 엮음 / 서울 흥사단 / 2001년
- ⑯ 한국 어린이 · 청소년의 인권 - 진주지역 사례 연구
김중섭 편 / 오름 / 2002년
- ⑰ 애들아, 인권공부하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엮음 / 사람생각 펴냄 / 2003년

- ⑱ 땅콩선생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 지음/우리교육 펴냄/2003년
- ⑲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공청회’ 자료집
학생인권선언 제정위원회/1998년
- ⑳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토론회’ 자료집/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999년

2 논문

- ①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모색
이용교·이희길/한국 아동권리학회 발행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11/1997년
- ② 학생과 교사의 아동·청소년 권리 인식에 관한 연구
성정숙/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8년
- ③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경내/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8년
- ④ 인권교육 수업 프로그램
백영애/21세기를 여는 '98전국도덕교사 여름연수자료집 11/1998년
- ⑤ 인권교육에 대한 대안적 접근
버지니아 단단/세계인권선언 50주년기념사업회 발행 한국 인권교육의
진로 11/1998년
- ⑥ 세계인권선언 이후 중부 유럽의 인권교육 50년
엘레나 크로포바/세계인권선언 50주년기념사업회 발행 한국 인권교육
의 진로 11/1998년
- ⑦ 청소년 인권교육의 실태와 과제
이용교/한국청소년개발원 발행 한국청소년연구 29 11/1999년
- ⑧ 차별과 학생의 인권 사이
성민선/한국교육신문사 발행 새교육 533 11/1999년
- ⑨ 청소년 인권의 현실과 제언
권혜진/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발행 오늘의 청소년 141 11/1999년
- ⑩ 학생의 '삶' 과 인권 - 그 현실과 개선조건
이수광/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발행 교육연구 10 11/2000년

- ⑪ 청소년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 발행 오늘의 청소년 153 마/2000년
- ⑬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최윤진/한국청소년학회 연구논문/2000년
- ⑭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이수광/강원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0년
- ⑮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문진경/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1년
- ⑯ 아시아의 인권현실과 인권교육의 과제
바실 페르난도(Basil Fernando)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발행 국제이해교육 통권7호 마/2002년
- ⑰ 청소년노동 실태보고서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현장실천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2002년
- ⑱ 청소년 인권과 인권 교육
송원찬/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발행 오늘의 청소년 통권175호 마/2003년
- ⑲ 학생인권 신장 방안에 관한 연구
조영화/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2003년
- ⑳ 인권단체 인권교육을 활용한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윤정숙/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년
- ㉑ 청소년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정윤영/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년
- ㉒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박상준/한국사회과교육학회 발행 시민교육연구 35권 마/2003년
- ㉓ 가정 안에서의 인권 교육
오창익/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 사목 통권 292 호 마/2003년
- ㉔ NEIS를 계기로 본 학생인권
하승수/(새길을 여는)교육비평 제13호 마/2003년
- ㉕ 왕따현상을 통해 본 학생인권 실태와 대안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http://www.sebabo.net>

[해당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명단]

박진, 송원찬(이상 다산인권센터), 배경내, 류은숙, 김영원(인권운동사랑방), 김철준(변호사), 조영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박인혜(희곡작가), 여혜숙(즐거운학교 체험학습 전문강사), 최정현진(평화인권연대), 홍자영(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변호사), 권혜진(전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 실장), 강혁(서울 YMCA 청소년사업부), 최윤진(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강순원(한신대학교 신학대 교수)

3

성인 인권

3 성인 일반



현재 국내의 많은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자체 회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들은 꼭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용면에서 인권교육으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만을 전담해서 고민하고 개발하고 준비하는 전담활동가가 없어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육 방식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련 활동가나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물론 강의식 교육 방식이 가지는 장점과 유의미성도 있긴 하지만, 좀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성인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민가협 인권강좌

주 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및 팩스 : 02)763-2606 02)745-5604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minkahyup.org>

minka21@hanmail.net

담당자 : 박성희 간사

기 간 2000년 5월~ 현재까지(월 1회, 34회 강좌)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대 상 민가협 회원들

목 적

민가협 회원들과 일반시민들에게 해당 시기 다양한 인권운동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인권 교육상의 특징

교육은 거의 대부분 해당 주제와 관련한 활동가나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형식면에 있어서는 다소 단조로운 감이 있으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차별과 반인권, 각종 모순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주제를 시의성있게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주제와 강사 섭외에 있어서도 현장성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 제1회 : 주민등록제도(지문날인제도)의 문제 - 김기중(변호사)
- 제2회 : 미국, 우리에게 무엇인가 -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 제3회 : 국제인권운동과 UN의 활용방안 - 박경서(인권대사)
- 제4회 : 국가인권기구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조용환(변호사)
- 제5회 :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법의 내용과 문제 - 박래균(인권운동사랑방)
- 제6회 : 내가 경험한 미국의 시민사회운동 - 황인성(한겨레통일문화재단)
- 제7회 : 빠리의 택시운전사 흥세화와 민가협 어머니들의 대화 - 흥세화
- 제8회 : 검찰 출입기자가 본 검찰의 현주소 - 김창석(한겨레21)
- 제9회 : 법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국가보안법의 문제 - 백승현(변호사)
- 제10회 : 국가보안법과 인권 - 차병직(변호사)
- 제11회 : 주한미군기지의 역사적 배경과 문제, 그리고 반환운동 - 김용한(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집행위원장)
- 제12회 : 부시정권의 대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 정연주(한겨레신문)
- 제13회 : 파리망명객 이유진과 민가협 어머니의 만남 - 이유진
- 제14회 :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이유명호(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제15회 : 제일한국인 이 철이 본 한국사회 - 이철
- 제16회 : 오민의 감옥이야기 - 오민
- 제17회 : 여성과 인권 - 이숙경(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 제18회 : 유시민의 세상읽기 - 유시민(시사평론가, 현 국회의원)
- 제19회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나 - 남규선(민가협)
- 제20회 :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 제21회 : 장애인 인권 - 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 제22회 :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국가보안법 - 조국(서울대 법대)
- 제23회 : 군사주의와 인권 -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 제24회 : 행형법을 중심으로 본 감옥인권 - 이상희(변호사)
- 제25회 : 미군지위협정(SOFA)의 역사와 개정방향 - 이정희(변호사)
- 제26회 :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 김해성(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 제27회 : 이라크전쟁과 한반도 평화 - 정옥식(평화네트워크)
- 제28회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 장유식(변호사)
- 제29회 : 병역거부 양심수들의 인권침해와 구제방안 - 오태양(양심적 병역거부자)
- 제30회 - 네이스 문제를 중심으로 본 정보인권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 제31회 - 보안관찰법 - 송소연(민가협)
- 제32회 - 북핵 해법과 한반도 통일 정세 -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 제33회 - 호주제와 가정의 민주화 - 고은광순(호주제폐지 시민의 모임)
- 제34회 - 국정원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테러방지법 - 장주영(변호사)

평화행진 2001

주 최 평화인권연대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5층

전화 및 팩스 : 02)393-9085 02)363-9085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peace.jinbo.net peace@jinbo.net

기 간 2001년 8월 3일 ~ 7일 (매년 1회 개최)

대 상 대학생, 병역거부자, 단체 활동가 등

목 적

평화행진은 2000년 2월 ‘한반도 분쟁지역 체험여행’의 경험을 토대로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재정의된 평화를 어떤 방식의 실천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평화를 거대한 담론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 개 개인의 구체적인 인권문제로 접근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으며, ‘평화는 인권이다’, ‘안보에 대한 재정의: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로’, ‘평화는 가능하다:대안적 평화문화실험’이 세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인권 교육상의 특징

평화행진은 평화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는 수직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를 거부한다. 즉, 평화문화란 살아 움직이는 문화이며 일상에서의 인권존중이자 다양성이 인정되고 공존하는 사회인 것이다. 그래서 평화행진에서는 누군가 명령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의 지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정, 모든 결정에 대해 ‘자율’이라는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여 개별 워크숍의 참가여부는 전적으로 참가자 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이었다. 또한 캠프의 마지막에는 그동안 보고 느낀 반평화, 반인권에 대한 행진이나 비폭력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다.

● 첫째 날 - 여는 마당

워크숍① 대안적 평화습관 만들기1, Peace Bar

● 둘째 날

워크숍②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성폭력(영상토론)

워크숍③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워크숍④ 환경-우와족

워크숍⑤ 호주 운동단체에서의 활동경험나누기, Peace Bar

● 셋째 날

워크숍⑥ 시위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워크숍⑦ 동성애·트랜스젠더 바로보기

워크숍⑧ 대안적 평화습관 만들기2

워크숍⑨ 포르노그래피를 통해 본 표현의 자유와 인권(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

워크숍⑩ 한국·대만 공동 워크숍, 액션(T-shirts 제작), Peace Bar

● 넷째 날

매향리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 송탄 세움터와의 간담회, 액션 준비(홍보물, 퍼포먼스 등)

● 다섯째 날

전쟁기념관 관람, 전쟁기념관 앞 캠페인

[그 외 성인 관련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단체]

1.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군·경의문사 및 폭력 실태 근절방안교육 / 02)777-6602 / www.armyngo.org

2. 울산인권운동연대;

시민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울산인권학교' / 052)242-1119 /

www.ulsanhr.or.kr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인권캠프 / 02)730-4755 / www.amnesty.or.kr

4. 인권실천시민연대 / 02)3672-9443 / www.hrights.or.kr

5. 광주인권센터 / 062)529-7576 / www.ingwon.org

6.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063)278-9331 / www.onespark.or.kr

7. 천주교 인권위원회 / 02)777-0641 / www.cathrights.or.kr

8. (사)노동자를 위한 연대;

법률상담원 양성교육 / 051)893-8746 / www.laborps.or.kr

4

여성

4 여성



여성은 인권교육이 가장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각종 여성단체의 주요 활동 분야의 하나로 교육부분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회원교육, 일반인 대상,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나뉘어 있다.

가장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주로 준전문가, 즉 상담원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랜 교육 경험으로 풍부한 자료와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 인권 일반과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주의 상담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 형식의 교육과 심리치료를 동반한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학교-당당한 여성, 보람있는 일터”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중 사회복지사 대상 전문 교육과 보호시설(가출 성매매 관련 쉼터) 실무자 및 관련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성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전문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 서울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학교 “당당한 여성, 보람있는 일터”

주 최 서울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후원:서울시여성발전기금)

주 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8-21 2층

전화 및 팩스 : 02) 3141-3011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kwunion.or.kr> swwa@jinbo.net,
kwunion@jinbo.net

기 간 2003년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총 4회)

대 상 관심있는 모든 이

목 표

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법적, 사회적 권리와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심감 향상은 물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 **6/4 여성의 눈으로 세상 뒤집어 보기**
(강사 : 최상림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
- **6/11 알면 힘이 되는 권리 1**
(강사 : 강선희 공인노무사)
 - 모성보호, 성차별, 성희롱 등
- **6/18 알면 힘이 되는 권리 2**
(강사 : 고경섭 공인노무사)
 -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등 부당대우
- **6/25 바람직한 사회적 인간관계맺기**
(강사 : 최상림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숍 (2003)

주 최 서울여성의 전화

주 소 : 서울 중구 신당1동 2360509 을지빌딩 5층

전화 및 팩스 : 02)2272-2161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womanrights.org>

swline@kornet.net

기 간 2003년 10월 29일 ~ 11월 19일 (매주 수요일) 10시-1시 (총4회기)

대 상 사회복지사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지역별 50명, 선착순 마감)

교육 일시와 장소

제1차 (중부지역) 6월 4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제2차 (강남지역) 6월 11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제3차 (강북지역) 6월 18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제4차 (강서지역) 6월 25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시간	강의내용	강사
10:00-10:30	참가자 소개 및 인사 나누기	
10:30-11:30	강의 1 / 가부장제와 여성인권 - 가정폭력의 실태와 원인	정희진 (경희대 여성학 강사)
11:40-12:40	강의 2 / 구타 피해자 심리 및 아동에 미치는 영향	신혜섭 (동덕여대 사회복지과 교수) 양혜원 (한국디지털대 사회복지과 교수)
12:40-14:00	점심식사	
14:00-14:20	비디오 상영 ('도하의 꿈')	
14:20-16:00	웍샵 통합적 서비스 체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30분) 경찰, 사회복지사, 각 지역의 경찰, 사회복지사,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사례발표 (각 20분)	신은주 (평택대 사회복지과 교수) 신영화 (군산대 사회복지과 교수)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16:00-16:30	종합토론	
16:30-17:00	평가 및 정리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주 최 서울여성의 전화

주 소 : 서울 중구 신당1동 2360509 을지빌딩 5층

전화 및 팩스 : 02)2272-2161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womanrights.org>

swhline@kornet.net

기 간 2002년 10월 9일 ~ 30일 (매주 수요일) 오후 2 ~ 4시

대 상 가정폭력 피해여성

프로그램

● 1회기

* 프로그램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1. 여성주의 집단상담의 목표 및 집단 규칙 안내
2. 자기소개

● 2회기

1. 강의 - 피드백의 방법/ 폭력의 주기
2. 자기이야기 - 2명

● 3회기

1. 강의 - 지난 시간 점검/ 학대의 형태
2. 자기이야기 - 2명

● 4회기

1. 강의 - 지난 시간 점검/ 여성이 폭력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 자기이야기 - 2명

보호시설 실무자를 위한 교육

주 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주 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5

전화 및 팩스 : 02)322~1585 02)322~1587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1318.seoul.go.kr>

기 간 2004년 2월 5일 - 4월 8일(매주 목요일, *3월9일만 화요일), 오후 3시(총 10회)

대 상 가출 성매매 관련 쉼터 실무자 및 관계자 40-50명

장 소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교육장(너른마루)

목 적

본 강좌는 가출 성매매 관련 상담가 및 쉼터 실무자들에게 체계적인 여성학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왜곡된 가치관과 여성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양성평등 의식과 섹슈얼리티 전반의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가출과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십대 여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 01. 섹스 · 젠더 · 섹슈얼리티

제1강 2/5(목)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역학: '여성'으로 살아가기

- 변혜정(여성학박사)

제2강 2/12(목) 로맨틱한 환상, 포르노그래픽한 일상, 에로틱한 이상에 대해

- 김현미(연세대학교사회학과교수)

● 02. 몸 · 성 · 사랑

제3강 2/19(목) 영화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성과 육체

- 주유신(중앙대겸임교수)

제4강 2/26(목) 뫼비우스 띠로서의 몸: 여성/육망/ 이데올로기

- 임옥희(여성문화이론연구소 대표)

제5강 3/4(목) 성과 사랑 그리고 결혼

- 이숙경(웹진 줌마 대표)

제6강 3/9(화) 성적 소수자의 인권

- 한채윤(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부소장)

● 03. 성폭력과 성매매

제7강 3/11(목) 성폭력의 사회문화적 구조와 성각본

- 김현영(한국성폭력상담소 정보사업부장)

제8강 3/25(목) 성매매와 여성의 삶

- 엄상미(막달레나의 집)

● 04. 십대여성의성과 문화

제9강 4/1(목) 십대의 문화활동과 섹슈얼리티

- 김영옥(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제10강 4/8(목) 파편화된 몸, 떠도는 육체를 넘어서 : 십대의 성문화와 가출문제

- 박현이(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그 외 여성 인권교육 관련 단체]

구성애의아우성 <http://www.9sungae.com>

늘푸른여성정보센터 <http://1318.seoulgo.kr> 02-731-6114

대구여성회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팀

<http://daeguwomen21.or.kr> 053) 422-8297

또 하나의 문화 <http://www.tomoon.org> 02) 322-7946

막달레나의 집 <http://www.magdalenahouse.org> 02-794-8384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

<http://wom-survivors.org> 051-247-8292

부산성폭력상담소 <http://www.wopower.or.kr> 051-558-8832

부산여성회 <http://www.busanwomen.or.kr> 051-852-6647/8

대구여성회 <http://www.daeguwomen21.or.kr> 053-421-6758/427-4577

대한YWCA <http://www.ywca.or.kr> 02-774-9702

서울여성노동조합 <http://www.women119.or.kr> 02-365-6594/5

성희롱예방센터 <http://myhome.netsgo.com>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http://www.han-sori.org> 02-3147-1505

새움터 E-mail: swoom@chollian.net 031) 663-4655-6/867-4655

언니네 <http://www.unninet.co.kr> 02-812-9069

여성법률상담센터 <http://www.womenlaw.co.kr> 02-584-4003

여성환경연대 <http://www.ecofem.net>

장애여성공감 <http://www.wde.or.kr> 02-441-2384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http://www.was.or.kr> 02-441-232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02-521-5364

전북성매매인권지원센터 <http://www.jbwomen.or.kr> 063-287-3459

평등의전화 <http://www.kwwnet.org> 02-708-4620/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http://peacewomen.com> 02-2275-4860/2264-864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02-780-5688/9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02-338-2890/2
한국알트루사여성상담소 <http://womenmind.simin.org>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kwwnet.org> 02-325-6817
한국여성단체연합 www.women21.or.kr 02-2273-9535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02-737-5763
한국여성상담센터 <http://www.iffeminist.or.kr> 02-953-1704
한국여성의전화연합 www.hotline.or.kr 02-2269-296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k-comfortwomen.com> 02-365-4016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02-2273-9535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antihoju.jinbo.net

[관련자료 목록]

1. **고등학생의 여성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박병영/순천대 교육대학원/ 2002/ 석사
2. **한국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중심으로 / 김영순 한양대 대학원/ 2001/ 박사
3. **가정폭력과 그 통제과정에서 여성의 단계적 피해자화에 관한 연구**
아내구타를 중심으로 / 김희연/ 이화여대 대학원/ 2003/ 석사
4. **부부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주명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2003/ 석사
5.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연구**
아내학대 중심으로/ 박미영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2002/ 석사
6. **여성폭력쉼터 이용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
박희숙/ 수원대 행정대학원/ 2002/ 석사
7. **매맞는 아내를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김영순/ 충북대 대학원/ 2004/ 석사
8.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위기개입서비스 연계망 모형 개발**
이인숙/ 부산대 대학원/ 2004/ 박사
9.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희/ 전북대 대학원/ 2003/ 박사
10.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태선/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03/ 석사
1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효과적 대응방안 연구**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서병순/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3/ 석사
12. **가정폭력의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성순/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3/ 석사

13.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아동의 이상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현정/ 안양대 경영행정 대학원/ 2003/ 석사
14.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그 회복과정 연구
이명희/ 경성대 대학원/ 2003/ 박사
15.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손상에 관한 연구
정여주/ 충남대 대학원/ 2003/ 석사
16. 성폭력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양창국 안양대 신학대학원 2003
17. 초등학생의 성폭력 피해경험, 교육, 통념에 관한 실태
유순행 고신대 대학원/ 2003/ 석사
18.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사례 분석/ 박정미/
서울대 대학원/ 2002/ 석사
19.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
백경옥/ 조선대정책대학원/ 2003/ 석사
20. 인터넷상에서 불건전 유해정보의 피해와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연구
김종원/ 경원대 교육대학원/ 2003/ 석사
21.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연구
장명숙/ 동의대 행정대학원/ 2003/ 석사
2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방영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3
23. 성매매의 고착기제 연구
탈성매매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변정애/ 가톨릭대 대학원/
2004/ 석사
24.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와 처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고정숙/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2003/ 석사
25. 성매매청소년 보호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소은/ 계명대 대학원/ 2003/ 석사

26.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이경옥/ 창원대 대학원/ 2002/ 석사
27.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수/ 용인대 경영대학원/ 2002/ 석사
28. 여자 청소년의 청소년성매매 유입 과정에 관한 연구
김은정/ 이화여대 대학원/ 2002/ 석사
29.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황의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2/ 석사
30.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김현선/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2/ 석사
31.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
기지춘의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백재희/ 이화여대 대학원/ 2000/
석사
32. '성폭력' 개념 확장과 '성폭력' 경험 인식 과정에 관한 연구
배지선/ 이화여대 대학원/ 2003/ 석사
33.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남현미/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2003/ 석사
34.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신연/ 대불대 사회복지대학원/ 2003/ 석사

5

장애인

5 장애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센터, 장애여성공감, 서울장애인 연맹, 노들장애인 야학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편견과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확보하기 위한 일반인을 위한 강좌와, 장애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효과가 높았던 프로그램을 예로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2003년 일정표를 수록하였다.

2003 장애우 인권학교

-“일상에서 인권찾기-차별 허물기, 그리고 전쟁과 장애”

주 최 (사)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전화 및 팩스 : 02)521-5364 02)584-7701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cowalk.or.kr> psk328@hanmail.net

기 간 2003년 9월 18일 ~ 20일

대 상 장애인권에 관심 있는 장애 및 비장애인을 대상

인권 교육상의 특징

장애인들의 실태와 사회적 차별의 문제점들을 일반인과 장애인에게 동시에 알리고 교육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구체적 사례를 통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 프로그램 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진행한 인권침해토론과 시 창작, 인권마을짓기 등의 다양한 방식은 모든 성원의 수준에 상관없이 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비디오를 통해 강의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투쟁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더 적극적 관심을 갖게 하였다.

프로그램

시 간	제 목	내 용
첫째날		
오후 1:00	자, 모입니다	집결, 간단한 사전설명, 차량배치
오후 4:00	인권학교 입학식 조별시간	입학식을 통해 서로 인사하고, 인권학교의 숙소배치 짐정리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오후 6:00	식사 및 휴식	맛있는 식사와 휴식속에서 서로 사립의 시간을 가지세요.
오후 7:00	강의1- 인권과 나 (강사:김영원-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중간휴식	
오후 11:00	인권영화제 (상영작 : 등대지기, 모두 뛰어넘었다, 무명천 할머니)	인권영화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키워봐요.
오후 -	자유롭게 정리	

둘째날

오전 7:00	기상, 아침명상, 산책, 씻기	북한산 주변을 산책하며 몸안의 맑은 기운을 담아봅시다.
오전 8:30	식사 및 휴식	맛난 아침을!!!
오전 10:00	강의2- 장애차별과나 (박경석:이동권연대 대표)	이동권 투쟁을 통해 장애 차별의 해결고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오전 12:00	점심 및 휴식, 낮잠자기	점심도 맛있게! 낮잠도 맛있게!
오후 2:00	강의3- 장애차별과나 (박숙경:인권센터 팀장)	여러 가지 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모색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후 4:30	토론 : 나는 반차별활동가	이틀간의 강의를 통해 장애인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구체적 상황에 맞는 활동계획을 세워보고 발표하는시간입니다.
오후 6:30	저녁식사 및 휴식	밥의 소중함, 농민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남기지 말고!
오후 7:30	발표 : 나는 반차별활동가	조별로 반차별활동계획을 발표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후 9:00	이지상과 함께하는	이지상과 함께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쟁과 평화” 콘서트	나누는 시간, 은국(반전평화팀장), 김미옥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님도 함께합니다. 뜻대한 토론과 사림의 시간입니다.
오후 10:30-	자유롭게 뒷풀이	

셋째날

오전 8:00	기상, 산책, 명상, 씻기, 숙소정리	마지막아침을 산책과 함께 상쾌하게!!!
오전 9:30	식사 및 휴식	마지막까지 맛있게!!
오전 11:00	평가	평가는 솔직하고 자세히~
오전 11:30~	인권학교 졸업식 및 시상식	그동안의 일정을 돌아보고, 함께 토론한 내용이 헛되지 않도록 내삶을 변화시키고자 힘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오전 12:30	야외 촬영 및 뒷풀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인권찾기

- 차별허물기, 그리고 전쟁과 장애 -

2003년 9월 18~20일, 봉도수련원에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134-083)

T. 521-5364, 521-8298 F. 584-7701 / <http://www.cowalk.or.kr>

자/료/집/순/서

1. 인권학교 일정표1
2. 강의 I - 내안의 인권 "인권이란 무엇인가" 김영원/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3	
3. 강의 II - 창살없는 사회감옥 박경석/장애인노동권연대 대표 13	
4. 강의 III - 인권확보활동 방식과 차별감수성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팀장..... 25	
5. 부록 I - 장애인인권현장 44
6. 부록 II - 세계인권선언 46
7 부록 III -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53
8. 영화와 콘서트 소개 58
9. 함께 불러봐요 - 62

장애인노동자 권리찾기 교실

주 최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주 소	서울 용산구 갈월동 73-1 2층
전화 및 팩스	: 02) 702-1574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jscenter.or.kr jscenter@jscenter.or.kr
기 간	2003년 8월 ~ 11월
장 소	대학로 주현교회(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함)
대 상	장애인권에 관심 있는 장애 및 비장애인을 대상
목 적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동권과 함께 노동권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힘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교육상의 특징

전체 프로그램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1주제는 개요에 해당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자성, 노동법,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주제는 각자의 환경과 특성, 경험을 자각하는 자아를 찾는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마지막 3주제에서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할 임금체계, 4대 보험,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의미 등을 교육하였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자칫 교육이 원론과 당위 차원으로 흐르는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 내용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노동자 권리찾기교실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강남본부 중남부센터

장애인노동자 권리찾기 학교일정

과 정	주기	교육 내용	주기	교육 내용
제1주제 장애 노동 권리 찾기	1회	오리엔테이션 (강의일정, 취지)	5회	노동법 바로보기
	2회	장애인노동자의 삶과 현실	6회	노동자와 노동조합
	3회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보기	7회	장애인 노동권과 장애인 노동조합
	4회	노동과 여성	8회	토론회

과 정	주기	교육 내용	주기	교육 내용
제2주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9회	MBTI(자기유형 테스트) I	3회	장애노동자 활동가와의 시간
	10회	MBTI(자기유형 테스트) II	14회	나를 찾아서(나의노동경험)
	11회	PET(의사소통훈련) I	15회	나의 문제와 대응 방법
	12회	PET(의사소통훈련) II	16회	토론회

과 정	주기	교육 내용	주기	교육 내용
제3주제 장애인 노동자의 올바른 권리 주장하기	17회	임금체결란 무엇인가	21회	국민연금과 안정적 노후생계보장
	18회	고용보험의 이해와 문제점	22회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19회	건강보험-치료받을 권리, 완전히 나올권리	23회	장애인 노동권 · 생활권확보와 노동조합의 의미
	20회	산재보험 5대개혁과제	24회	토론회

장애인청년학교

주 최 서울DPI(서울장애인연맹)

주 소 : (143-816)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 본관 4층

전화 및 팩스 : 02)447-0277, 02)447-0276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dpiseoul.or.kr> dpiseoul@hanmail.net

기 간 2003년 5월 10일~6월 29일(주 1회, 10강)

장 소 정립회관 강당

대 상 장애인 30명, 비장애인 20명

목 적

장애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당사자주의, 장애인노동을 재활의 측면과 권리의 측면으로 바라본 장애인노동권, 장애인의 성, 종교와 장애인, 장애여성운동, 자립생활 운동 등 새로운 형태의 장애해방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인권교육상의 특징

교육 참가자들의 장애영역이 지체 영역으로 집중된 것이 한계라는 평가 속에 그 외의 장애영역으로까지 교육을 넓혀나갈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자들의 모임이 이어졌고, 단체 활동가로 일하게 된 경우도 있는 등 후속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다.



장애인청년학교 3기 자료집

주 최 : 한 국 D P I (한국장애인연맹)
주 관 : 서 울 D P I (서울장애인연맹)
후 원 : 정립회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목 차

- 발간사 · 5
- 장애인의 인권과 당사자주의 - 김대성(서울DPI 회장) · 9
- 장애인과 노동권 - 이성규(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9
- 장애인도 성(性)을 누릴 권리가 있다 · 33
- 전정옥(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사무국장)
- 장애와 종교 · 48
- 한광수(現 서대문감리교회 전도사, 前 전장협 편집홍보부 부장)
- 장애여성 힘, 당사자의 목소리로 · 53
- 김미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기획부장)
- 장애패러다임의 전환과 자립생활 - 김동호(정립회관 기획팀장) · 66
- 자립생활 - 김동호(정립회관 기획팀장) · 93
- 한국장애해방운동의 역사 - 이상호(서울장애인연맹 조직국장) · 99
-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립을 향해 일본DPI가 목표로 하는 것 · 111
- 미사와료(DPI 일본회의 사무국장)
- 장애인운동의 평가와 전망 - 이안중(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천지회장) · 119
- 수강생 명단 · 122

장애여성공감 교육과정 - 장애여성의 성

주 최 장애여성공감

주 소 : 서울 강동구 명일동 47-1 세종프라자 705호

전화 및 팩스 : 02) 441-2384 02) 441-2328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wde.or.kr> wdc21@hananet.net

기 간 2002년 12월 21일

장 소 단체 사무실 및 정립회관 세미나실

대 상 장애인권에 관심 있는 장애 및 비장애인을 대상

목 적

장애여성이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폭력이나 인권유린을 당했을 경우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스스로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권교육상의 특징

매년 시행하는 장애여성공감의 교육과정은 장애여성들이 직접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실시되기에, 단체에서는 장애여성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폭력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장애여성의 몸, 장애여성과 노동, 장애여성과 폭력, 장애여성의 성 등 주제별로 내용을 잡아 정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문가나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한국의 실정에서 본 프로그램은 연구와 자료의 기본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의 경험이 바탕이 된 인권교육은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권리능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공감 2002-12

2002년 장애여성의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워크숍 자료집

- ▶ 일시 : 2002년 12월 21일
- ▶ 장소 : 정립회관 세미나실
- ▶ 주최 : 장애여성공감
- ▶ 후원 : 서울특별시

장애여성공감

2002년 장애여성의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워크숍 자료집

목차

〈 2002년 장애여성의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 성적소수자여성과 장애여성의 만남 : 여울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모임 '끼리끼리' 회원 / 4
- 현장활동가가 본 성매매 실태와 가능한 대안들 : 김미령 / 성매매피해여성자립지원을 위한 현장활동가, 자립지킴이공동체 실무책임자 / 9
- 성?! : 김언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 33
- 장애여성의 성 : 박영희 / 장애여성공감 대표 / 44
- 매체속에 나타난 장애여성의 성 : 김미연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 48
- 장애여성과 월경 : 타리 / 장애여성공감 회원 •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 53

〈 교육과정 전체 총화글 〉 - 박영희 / 장애여성공감 대표 / 59

〈 그룹별 교육과정 및 활동 내용 정리 〉

- 그룹별 교육과정을 위한 첫모임 : 정리- 박영희 / 장애여성공감 대표 / 63
- 1그룹. 문학이나 각 매체속에 나타나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적이미지 : 정리- 정영란 /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64
- 2그룹. 우리사회 남성성문화내에서 장애여성이 어떻게 왜곡된 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및 교육 : 정리- 박영희 / 장애여성공감 대표 / 67
- 3 그룹 여성주의시각에서 바라보는 장애여성의 성에 대한 문제 및 교육 : 정리- 박주희 / 장애여성공감 운영회원 / 71

〈 총화글 〉

- 장애여성공감 캠프 2002 '억압된 천사에서 자유로운 마녀로' : 정영란 /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77
회원소감글 - 이성미 회원, 박목우 회원
- 장애여성공감 난장 2002 '나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 박주희 / 장애여성공감 운영회원 / 83
회원소감글 - 김상희 회원
- 장애여성공감 대담 2002 '장애여성의 성' : 정영란 /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87

〈 그룹별 교육과정 및 활동내용 정리 〉

1. 각 그룹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첫만남

- ▶ 일시: 2002.4. 13.
- ▶ 장소: 어린이대공원
- ▶ 인원: 43명
- ▶ 진행: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

어린이대공원에 자녀들을 데리고 전동휠체어를 탄 세 그룹의 장애여성들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로 대단했다. 다 함께 김밥으로 식사를 하고, 그룹별로 모여 8월까지 어떤 방식으로 장애 여성의 성을 연구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따뜻한 봄날에 가족들과 집을 나온 장애여성들은 의욕이 넘쳤다. 전동 휠체어에 도시락을 들고, 튜울립 꽃 아래 모인 회원들은 신나게 수다도 떨고 자유로이 자신들의 경험들을 얘기하며 공감하기도 하였다.

점심 식사 후 각 그룹별로 모여서 각자 그룹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마다 자기네들의 연구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조금씩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연극을 한편 관람 한다해도 영화 한 편을 본다 해도 편의 시설문제가 걸려서이다. 그래도 부딪혀보자는 아무진(?)꿈을 꾸면서 동물들을 구경하고 저무는 태양을 등지고 공원을 벗어났다.

2 제1그룹

“그룹문학이나 매체 속에 나타나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적 이미지”

정영란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1) 기획안

제1그룹은 '문학이나 각 매체 속에 나타나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적이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문학이나 각 매체 속에 나타나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적이미지와 왜곡된 시각을 모니터 하면서 장애여성 자신이 언제든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각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제1그룹은 3월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에는 인권영화 '씨클'을 보고 토론을하기로 했다

4월부터 8월까지의 그룹에서 구입한 비디오를 보고 토론을하기로 했다.

* 제1그룹 프로그램 자료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

'사랑보다 더 큰사랑'

'안토니오스 라인'

'기적의 가비'

'사랑스런 그녀'

'더월1'

'더월2'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매체 속에 장애여성에 대한 잘못된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1그룹 프로그램 진행 내용

- 제 1차 여성인권영화 '씨클' 감상

프로그램 예

일시: 2002년 3월 23일
장 소: 광화문 아트큐브
내 용: 이란 여성들의 인권을 그린 영화
참가: 12명
담당: 정영란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토론내용 보고서>

제1그룹에서는 '문학이나 각 매체 속에 나타나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적 이미지'에 대한 그룹별 교육에 앞서 여성인권영화 한편을 관람했다. 장애여성의 인권을 말하기에 앞서 비장애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서양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지만, 동양권이나, 아랍 쪽의 여성들의 인권은 열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인권이 열악한 나라들은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열악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란의 비장애여성들은 보행을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동행자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었고, 우리나라처럼 결혼을 한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집안에서 쫓겨 날 두려움에 떨었다. 그만큼 이란 여성의 인권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이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비장애여성의 인권도 이렇게 열악한데, 이란의 장애여성과 우리나라의 장애여성의 인권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제 2차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 (TV 드라마) 감상

일시: 2002년 5월 4일
장소: 장애여성공감사무실
내용: 교통사고로 중도장애여성이 된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
참가자: 7명

<토론내용 보고서>

- 토론 주제: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 를 감상하고 이 드라마에서 장애여성이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토론

- 드라마 내용 :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 는 중도장애여성이 중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직접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주인공은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토론내용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토론이 나누어 졌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이 유학을 가서 어렵게 공부를 하여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여성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애인하면 늘 마스크에 비취지는 모습은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만 비취졌는데,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장애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관점이 많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여성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졌고, 주인공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장애여성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의식이 너무나 진보적이다. 장애여성이 딸에게 어머니가 '이 엄마가 없으면 동생에게 얹혀 살려고 그러냐 고 하시면서 공부를 강요하는 어머니는 정말 우리 실정엔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 집안에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중도장애인이 되면 모든 책임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지게된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가정엔 너무나 많은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자녀에게 무관심해지고, 그 자녀에게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후에는 버림을 받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 장애여성의 현실이다.

그리고 처음 부분에서 장애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뻔한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장애여성은 쉽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장애여성을 성추행을 하는 과정이 너무 쉬웠기 때문이다.

<기타..>

- 너무 좋게만 표현이 되었다.
- 장애인의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다.
- 주인공 어머니의 생각이 너무나 진보적으로 그려졌다.
- 너무 쉽게 장애를 극복한 것 같다.
- 중간중간 너무 슬펐다.
- '힘들겠다' 라고 생각했다.
- 장애가 어떤 장애인지 불분명했다.

[그 외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단체]

- ① 노들장애이야간학교 <http://nodl.or.kr/> 02-766-9101
- ② 경기복지시민연대 <http://www.kgwelfare.or.kr/> 031-251-4399
- ③ 관악사회복지 <http://www.kasw21.or.kr/> 02-830-8515
- ④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02-786-0190
- 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http://www.kgcsw.or.kr/> 031-258-8554
- ⑥ 사회복지워커넷 <http://socialworker.co.kr/home/main.html>
- ⑦ 민중복지연대 <http://www.minbok.or.kr/> 02-774-8773
- ⑧ 복지나눔터 <http://www.bokji.co.kr/> 02-785-4416
- ⑨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http://www.accessact.org/> 02-765-6835
- ⑩ 우리복지시민연합 <http://wooriwelfare.org/>

[관련자료 목록]

1. 도서 및 자료집

- ① 주거환경개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편의시설연구센터 / 2002
- ② 서울시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편의시설연구센터 / 2001
- ③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외 / 인간과 복지 / 2001
- ④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김규수 외 / 학지사 / 2003
- ⑤ 장애인의 재화, 복지
정순민 / 중앙경제사 / 2003

⑥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 장기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2

⑦ 미국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복지정책연구개발부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 1999

⑧ 장애인을 책임지는 사회

에다 톱 리스 / 이준우 옮김 / 여수륜 / 1997

2. 논문

① 장애인복지관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유지를 위한 관리과정에 관한 연구

최지옥 / 서울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②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와 생활만족도

윤호정 /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2003

③ 언어장애인의 재활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김성섭 / 청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④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정신보정신보건서비스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 이정화 /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⑤ 국가유공 신체장애인의 삶의 질. 우울 및 일상생활수행동작에 관련된 요인

손대옥 / 충남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⑥ 척수장애인의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윤성애 / 경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⑦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중도지체장애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최연배 /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⑧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사회기술능력 향상 프로그램 중심으로 / 김미정 /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 ⑨ 정신장애인가족의 자기옹호력 증진을 위한 사회사업실천 전략
하준선 /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3
- ⑩ 정신장애인의 병원내 직업재활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미경 /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 ⑪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박창윤 / 명지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6

성적 소수자

6 성적 소수자



성적소수자 관련 교육은 대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대부분 다른 강좌 내용 중 한 강의 정도로 배정되어 진행되는 정도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인권교육은 성적소수자 “인권캠프” 와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으로 성적소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03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2003 겨울 동성애자 인권캠프

주 최 동성애자 인권연대

주소 : 140-818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토종왕순대건물 5층

전화 및 팩스 : 02)778-9982 02)775-9983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lgbtpride@emp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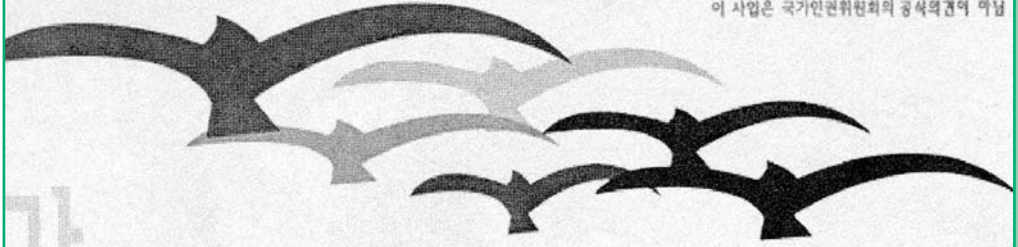
기 간 2003년 8월 22일 - 24일

장 소 만리포 해양 연수원

프로그램 2003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날짜	첫째날	둘째날
프로그램	MBTI(성격유형검사)	pride program
선택강좌	1. 에이즈, 동성애자의 병인가? 2. 군대와 동성애자	3. 여성, 이중의 굴레 4. 청소년, 동성애자로 살아가기
전체강연	퀴어 영화-탐폰설명서	동성애자차별과 청소년보호법 춘극발표회 "동성, 생활의 발견"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년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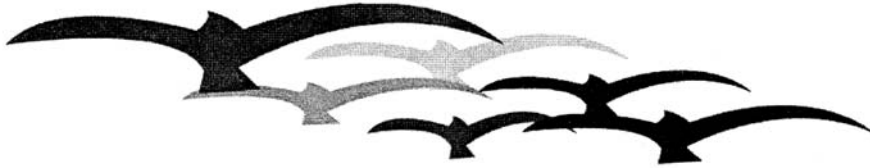


만
리
포
사
랑

2003 여름 동성애자 인권 캠프 자립집

2003 08 22-24
만리포 해양 연구원

준비단체
 경기대학교 경이문화재단/그리대학교 사람과사람/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세계수사자모임 분은이반/중앙대학교 Rainbow 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ani반/해양대학교 이반한양/홍익대학교 동태이반한사랑
 한국
 한국세계수사자모임 인권센터



22일

- 12시
점결
- 오후 1시
출발
점심식사
(휴게소, 도시락제공)
- 오후 4시
도라
점결기
조, 방 배정
- 오후 5시
캠프opening
- 오후 6시
저녁식사
- 오후 7시 - 9시
MBTI (성격유형검사)
LGBT 건강프로젝트 팀 정아용
- 오후 9시 - 11시
선택강좌
1. 에이즈, 동성애자의 病인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석균
2. 군대와 동성애자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 울
- 오후 11시 -
Queer Movie
Queer Cartoon
탐폰설명서

23일

- 오전 7시 - 9시
아침식사
- 오전 9시 - 10시
Pride Program
- 오전 10시 - 12시
선택강좌
3. 여성, 이종의 글래
-민주노동당 강남(갑)지구당
여성위원장 류민희
-동인연 활동가 지혜
4. 청소년, 동성애자로 살아가기
-캠프준비단 보노보노, 까르띠에
- 오후 12시 - 1시
점심식사
- 오후 1시 - 2시 30분
촌극준비 및 조별주제토론
- 오후 2시 30분 - 6시
레크리에이션
해수욕
- 오후 6시 - 7시
저녁식사
- 오후 7시 - 9시
전체강연
동성애자차별과 청소년보호법
-서울퀴어아카이브 프로그래머 서동진
-엑스콘 운영자 증 전
- 오후 9시 - 11시
촌극발표회 "동성, 생활의 발전"
- 오후 11시 - 12시
스포츠댄스 강습
- 이후, 캠프라이어/뒷풀이

24일

- 오전 9시 - 10시
아침식사
- 오전 10시 - 11시
조별시간/Rolling Paper
- 오전 11시 - 12시
ending
- 오후 12시 - 2시
자유시간
킵라면 지급
- 오후 2시
서울로 출발~!

_인쇄 노동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나 ~ 는 ?

번호	질문	그렇다 (8)	어느 쪽도 아니다 (4)	아니다 (0)
1	유행에 쉽게 자극 받는다.			
2	환경에 대하여 쉽게 영향을 받는다.			
3	나는 연기에 소질이 있다.			
4	웃차림은 밝으며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을 좋아한다.			
5	춤을 좋아한다.			
6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교육방송은 싫다.			
7	과학적인 것을 싫어한다.			
8	시나 노래 등을 좋아한다.			
9	타인을 비평하는 것을 좋아한다.			
10	공상을 매우 좋아한다.			
11	서울보다는 경주가 좋다.			
12	남 앞에 나설 때는 향수를 뿌리고 가고 싶다.			
13	남과 얘기 할 때에는 입 냄새가 걱정된다.			
14	시체를 보는 것이 무섭다.			
15	서부극이나 무협물을 싫어한다.			
16	사상이나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17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18	남의 소문에 대단히 신경을 쓴다.			
19	운동신경은 무뎠다.			
20	밤에 공동모자와 같은 데는 혼자 갈 수 없다.			
21	어두운 색깔을 싫어한다.			
22	화장실에서는 소변을 본 경우라도 손을 씻는다.			
23	과격하고 폭력적인 것을 싫어한다.			
24	세세한 수공 직업에는 비교적 자신이 있다.			
총 점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갖기 프로그램

주 최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전화 : 02)703-3542~3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kirikiri.org> kiri9411@chol.com

기 간 2003년 8월 30일 ~ 9월 27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장 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4동 1층 대형강의실

프로그램

● 8/30 (토)

- <1강> 레즈비언으로 살/아/남/기 - '레즈비언 바로알기'
- <2강> 동성간 성폭력과 가정폭력 - 동성간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당신, 그리고 우리

● 9/6 (토)

- <3강> 내안의 호모포비아 깨기 -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시작'
- <4강> 그녀의 삶, 우리의 삶 - 40대 커밍아웃 활동가 윤김명우 사장님과 함께

● 9/13 (토)

부산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센터 활동가 가루님

● 9/20 (토)

- <7강> '동성교제' 잘 하는 법 - 당신이 알고 싶은 모든 것
- <8강> 성적소수자 여성의 자산관리, 재테크 - '비혼'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지침서

● 9/26 (금)

토론 1 - 청소년 동성애자와 인권

● 9/27 (토)

토론 2 - 기독교와 동성애

성애에 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여성성소수자 자긍심갖기 프로그램」

나타는 동성생애자다,
나타는 여성생애자다.

lesbian
lesbian
lesbian pride
lesbian pride
lesbian pride
lesbian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갖기 프로그램」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그 외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단체]

- ① 끼리끼리-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02)703-3542 / <http://www.kirikiri.org>
- ②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051-752-1996/ <http://www.womcenter.org>

[관련자료 목록]

1. 도서 및 자료집

- ① 성적 소수자의 인권 /한인섭:양현아공편/사람생각/2002
- ②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시슬꽃기/콜린월슨, 수잔 타이번/연구사/1998
- ③ 동성애 억압의 사회사 /노라 칼린/책갈피/1995
- ④ 한채윤의 섹스말하기:한국최초의 레즈비언 섹스 가이드 북 /한채윤/해울/2000

2 논문

- ① 한국동성애 및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Somjaree Pikulthong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2002
- ② 광고에 표현된 성 정체성 고정관념파괴에 관한 연구:1995년 이후의 국내 TV
광고를 중심으로/정효찬-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2001
- ③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강달찬/중앙대 대학원/2001

7

이주노동자

7 이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수준은 그 사회가 도달한 민주주의의 수준과 시민들의 사회의식의 성숙도에 비례한다. 국적이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연히 이 땅에서 일하며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 역시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회인 것이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란 홀로 독립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의 수많은 소외 계층의 문제와 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뿌리를 함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이주노동자를 위한 단체나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소수자를 위한 단체들과 연대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벌여가고 있다.

이 중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직접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들을 위한 교육과, 실제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미나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현실적 실태와 문제 등을 알리고 고민하는 세미나와 직접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권리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제시하였다.

인권과 아시아 연대를 위한 인권강좌/아시아의 창

주 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주 소 :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193-9 송광빌딩 4층 (614-042)

전화 및 팩스 : 051) 802 -3438/ 051)803-9630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fwr.jinbo.net> noja@komet.net

담당자 : 이미란

기 간 2003년 2월 11일-2월 21일(제 3회 인권과 아시아를 위한 인권강좌)
2003년 5월 19일-5월 29일(2003 아시아의 창)

장 소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교육관

대 상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목 적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약자의 문제와 더불어 아시아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강좌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보다 넓은 시각으로 한국의 인권 문제를 바라 볼 수 있도록 한다.

인권 교육상의 특징

〈인권과 아시아 연대를 위한 인권강좌〉는 1회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2회 “소수자의 권리”를 주제로 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자원활동가 교육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접근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래는 제 3회와 제 2회 프로그램을 각각 소개한다.

〈아시아의 창〉은 아시아의 인권현실과 함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목적에 맞게 아시아의 다양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하는 강의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2002년과 2003년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인권과 아시아 연대를 위한 인권강좌(제 3회)

● 1강의(2/11)

한국 인권의 현주소 — 차이와 차별, 그리고 용인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

● 2강의(2/1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오택양

● 3강의(2/18)

이주노동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살기
설동훈(전북대학 사회학과 교수)

● 4강의(2/20)

북한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승룡(좋은 벗들 평화인권부)

● 좌담회(2/21)

한국의 인권운동과 인권운동가

전체 강좌 일정

횟 수	날 짜	주 제	강 사
1강	1월 24일 (목)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 한국 — 한국화교의 삶	장수현 (부산외국어대학 문화인류학 교수)
2강	1월 29일(화)	재일 동포의 삶	고정자 (재일 동포, 서울대학 비교문화연구소연구원)
3강	1월 31일(화)	한국인권의 현주소 —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4강	2월 5일(목)	탈북청소년의 문화와 인권	정병호 (한양대학 문화인류학 교수)

자 료

첫 번째 강의 자료 : “한국 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 강의 자료는 강의 주제별로 당일 배부될 예정입니다.

전체 강좌 일정

횟 수	날 짜	주 제	강 사
1강	5월 19일 (월)	동아시아의 평화와 일본의 역할	서 승 (인권운동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법학부교수)
2강	5월 22일(목)	이라크전을 통해 본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인권	성혜란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3강	5월 26일(월)	생존을 위한 전쟁 — 인도 불가촉천민의 인권	이성규 (Report25 PD)
3강	5월 29일(목)	북한핵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육식 (평화네트웍 대표)

자 료

- 첫 번째 강의 자료 : “비정상국가 일본의 이해와 극복”
—한반도 전쟁위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 두 번째 강의 자료 : “이라크전을 통해 본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인권”
<참고 1>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참가자 현황
<참고 2>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 경과 과정
- 세 번째 강의 자료 : “인도 비하르의 갈등과 학살”
- 네 번째 강의 자료 :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북한의 ‘핵 딜레마’”,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전체 강좌 일정

횟수	날짜	주제	강사
1강	5월 19일(월)	동아시아의 평화와 일본의 역할	서승(인권운동가, 일본리츠 메이킨대학법학부교수)
2강	5월 22일(목)	이라크전을 통해 본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인권	성혜란(한국이라크반전평화 팀)
3강	5월 26일(월)	생존을 위한 전쟁 -인도 불가촉천민의 인권	이성규(Report25 PD)
4강	5월 29일(목)	북한핵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자 료

첫번째 강의 자료 : “비정상 국가 일본의 이해와 극복”

- 한반도 전쟁위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두번째 강의 자료 : “이라크전을 통해 본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인권”

<참고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참가자 현황

<참고 2>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 경과 과정

세번째 강의 자료 : “인도 비하르의 갈등과 학살”

네번째 강의 자료 :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북한의 핵 딜레마”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건강 / 월례노동법 교육

주 최 노동인권회관 (부설)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기 간 2003년 1월~12월

대 상 20~50여명의 여성 이주 노동자

교육내용 및 방법

1회당 세 차례의 강의를 진행. 교재의 내용에 따라 1강은 노동법, 2강 성폭력, 3강 모성 보호를 주제로 강의 위주로 진행되며,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강의방식으로 진행

교재

■ '여성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 (자체 제작, 2003년)

- 제 1강 - 노동법의 기초
- 제 2강 - 성폭력과 여성 지원시스템
- 제 3강 - 모성보호를 위하여

프로그램 기획

● 기 획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 중에서도 여성의 문제가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로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이면서 여성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모집 및 홍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 대상으로 각 지원센터에 미리 공지를 하고, 연락이 오면 출장 순회 교육식으로 본 단체에서 섭외한 강사가 강의를 나감

● 예산 및 조달방법

총 1,000여만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후원

성폭력과 모성보호, 기타 질병이나 의료지원 시스템에 관한 내용의 강의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수강생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나 강의 내용(특히 노동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수강생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만큼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적인 문제이다. 심지어 노동부에서도 통역 인력 지원이 안돼, 자연스럽게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강생을 한정시킬 수밖에 없다. 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수강생은 옆의 동료가 이증으로 통역하여 전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1시간 동안의 노동법 강의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해 개괄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수밖에 곁할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교육 내용을 가지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도 재단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단체 자체적인 예산만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성외국인노동자의 권리와 건강

The Rights & Health of Women Migrants

- 노동법의 기초(Labor Laws of Korea)3
- 성폭력과 여성지원시스템(Violence against Women & Support System for Victims)30
- 모성보호를 위하여(Maternity Protection)53

일시 : 2003년 2월 - 12월

주최 :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후원 : 교보생명 · 한국여성재단

OX Quiz !

◇ 성희롱은 대수롭지 않은 장난에 불과하다. (O , X)

Sexual harassment is not a serious problem but just a little joke.

◇ 성희롱에 관한 한국법은 불법체류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O, X)

Anti-sexual harassment laws do not apply to illegal migrant workers.

◇ 남자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O , X)

Men can not be a victim of sexual harassment.

◇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희롱이다. (O , X)

Physical touching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exual harassment.

◇ 음담패설도 성희롱이다. (O , X)

Insulting jokes constitute sexual harassment.

◇ 특정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만 성희롱이다. (O , X)

A offensive behavior constitutes sexual harassment only when it aims at a certain individual.

◇ 외국인들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O , X)

If the offender is not Korean, he can not be punishable.

◇ 퇴근후 동료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O,X)

Even when your co-worker harasses you after work, he is punishable.

◇ 부부간이나 연인 사이에서는 성희롱이 될 수 없다. (O , X)

Sexual harassment can not happen between lovers or married couples.

◇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다. (O , X)

Sexual harassment is a little and personal problem.

◇ 여자가 야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면 처벌할 수 없다. (O , X)

If you are wearing provoking clothes when you get raped, you can not punish the person.

◇ 강간을 당했을 땐 몸을 씻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O, X)

If you are raped,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without washing your body.

[그 외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단체]

1. 서울

- ① 외국인노동자 대책 협의회 <http://jcmk.jinbo.net> / 02-747-6830
- ②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http://migrant.nodong.net> / 02-985-9061
- ③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http://www.munk.org> / 02-779-0326
- ④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http://chungam.or.kr> / 032-3672-9472
- 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http://www-sunflower.org> / 02-708-4286
- ⑥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http://www.inkwon.or.kr>
- ⑦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http://migrant.nodong.net> / 02-985-9061
- ⑧ 피난처 <http://pnan.org> / 017-298-5119
- ⑨ 선한 이웃 클리닉 <http://mclinic.net> / 02-6676-0161
- ⑩ 평화의 집 02-997-6230
- ⑪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http://www.smwc.or.kr> / 02-2283-7974
- ⑫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freechal.com/migrant/> 02-747-6830
- ⑬ 라파엘클리닉 <http://www.catholic.or.kr> / 02-741-6830
- ⑭ 희년선교회 <http://jubileekorea.org> / 02-858-7829
- ⑮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02-795-5504
- ⑯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02-757-7388

2. 인천

- ①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http://migrant114.org> / 032-4288-114

3. 경기

- ①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http://shalomhouse.or.kr> / 031-594-5821
- ②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http://www.bmwh.or.kr> / 032-654-0664
- ③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 <http://migrantworkers.org> / 031-756-2143~4

- ④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http://www.migrant.or.kr> / 031-492-8785
- ⑤ 안양 전진산복지관 <http://www.kafi.or.kr> / 031-443-2876
- ⑥ 시화일꾼의 집 031-497-7151
- ⑦ 갈릴래아 031-494-8411
- ⑧ 경기북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031-878-4090
- ⑨ 일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031-908-5004

4. 부산

- ①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http://fwt.jinbo.net> / 0551-802-3438
- ② 부산 카톨릭 노동상담소 051-293-6403

5. 전주

- ①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http://hopehome.org> / 063-272-2794

6. 경남

- ①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http://kmc.jinbo.net> / 055-277-8779창원
- ②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055-388-098

7. 대구

- ① 대구외국인노동자 상담소 053-257-0691
- ② 대구 근로자의 집 051-257-0691

8. 광주

- ①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062-971-0078
- ② 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 062-951-7993

9. 경북

- ① 경산 외국인노동자교회 053-815-7842

10. 충북

- ① 진천 외국인 형제의 집 043-534-6251

[관련자료 목록]

1. 도서 및 자료집

- ① 이주노동자에 대한 짧은 보고서
김영민 외 /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 2003
- ② 더불어사는 사회를 위하여-포괄적 외국인정책의 제언(일본)
김경미 옮김 / 민중사 / 2002
- ③ 국경 없는 마을과 다문화공동체
박천웅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2003
- ④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청년외사 /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 2001
- ⑤ 외국인여성노동자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1997
- ⑥ 외국인노동자정책과 보호대책
노동정책연구소 / 1995
- ⑦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최홍엽 / 한국노동연구원 / 1997
- ⑧ 제 1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세미나-
2000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보고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2000
- ⑨ 국제인권조약집
정인섭 / 사람생각 / 2000
- ⑩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석현호 외 / 미래인력연구센터 / 1998
- ⑪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무
남동희 / 미래미디어 / 1997
- ⑫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홍성현 / 한들 / 2000
- ⑬ 해바라기
이정옥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1999

- ⑭ 노동관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매일노동뉴스 / 1999
- ⑮ 외국인노동자 욕구조사 보고서
장안종합사회복지관 / 2001
- ⑯ 세계 이주노동운동 관련 최근자료 번역집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 1998

2. 논문

- ① 한국의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국가·자본·노동간의 관계
및 부문 내적 관계를 중심으로
최선화 /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 ② 국내 이주노동자 유입단계의 성숙에 관한 연구
정경화 /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 ③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정성철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 ④ 이주노동자의 건강관련 특성과 의료이용 실태
정재형 / 경북대 보건대학원 / 2002
- 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조사 연구
이춘섭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2
- ⑥ 국내 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금연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 2001
- ⑦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연구
안승용 /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⑧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유형석 /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0
- ⑨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고찰

송정환/전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⑩ 일본의 외국인노동자정책에 관한 연구

3. 영상 자료

① 스태프 크랙다운-이주노동운동에 대한 기록의 여정

제작:문성준 / 다큐멘터리 / DV / color / 20분

② MBC 시사매거진 2580 (2001.1.21) - <한국인VS이방인>

③ KBS 취재파일 4321 (2001.12.10) - <여기도 인권 사각 지대> 중 일부

④ KBS 취재파일 4321 (2001. 6.10) - <힘난한 코리아 드림>

⑤ KBS 추적60분 (2000.11.20) - <베트남 노동자의 한국어 교재>

8

난민/북한이탈주민

8 난민 / 북한 이탈주민



북한인권과 관련되어 소개된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직결되는 인권교육은 인권의 잠재적 피해자인 국내 탈북자를 비롯한 중국의 정치적 난민이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인권교육의 대상은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시민 및 경찰, 공무원 등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인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자 하였다.

현재 북한인권과 관련되어 가장 활발하게 포럼, 세미나, 자원봉사 및 대외적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모두 2004년에 진행 예정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이다. 소개된 두 단체 이외의 북한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 참고할만한 저서 및 논문은 프로그램 소개 마지막에 별도로 첨부하였다.

『북한인권▷ 난민문제 아카데미』

주 최 북한인권시민연합(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복동 10-22 심지빌딩 401호

전화 및 팩스 : 02)723-1672~2671 02)723-1671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nkhumanrights.or.kr>

bongsa@nkhumanrights.or.kr

담당자 : 양은주 간사 nkedu@nkhumanrights.or.kr

기 간

2004년 수강기간

7기- 2004. 4. 14.~ 6.3.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8기- 2004. 7. 15.~ 9.2.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9기- 2004. 10.14.~12.2.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장 소 서울시 종로구 교복동 10-22 심지빌딩 4층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실

대 상 대학(원)생, 일반인

프로그램 특징

『북한인권▷ 난민문제 아카데미』는 모두 8강좌, 석 달에 한번씩 개설되어 현재 3년째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일반인 대상의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권·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북한의 인권상황, 탈북자 문제에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난민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정착 및 적응과정을 좀 더 가깝게 이해하고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고 있다.

● ① 2004년 강의계획

강좌	주제	강사
1강	인권의 정의와 인권운동의역사	고은태 (엠네스티 한국지부장)
2강	난민의 정의와인정절차	장복희 (기독교대학법경학부)
3강	북한 일반	이원웅 (관동대 북한학과)
4강	북한의 인권실태	김병로 (아세아연합신대)
5강	재외 탈북자 실태	윤여상(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6강	남북한 사회통합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7강	탈북동포와의 대화	북한이탈주민
8강	북한인권 · 난민문제 해결의 접근방향	원재천(한동대법률대학원)

● ② 2002~2003년 다른 강좌명 (주요 강좌명 만을 기재)

- 난민의 정의와인정절차
- 인권의 정의와역사
- 국내 탈북자사회정착 및 적응과정
-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접근방향
- 북한 내의 인권실태
- 북한의 최근정세와 한반도 위기
- 대북 인도지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북한인권개선운동의 접근방향
- 북한인권 상황 변화지표와 북한의인권실태
- 북한인권 문제와 유엔기구(NGO)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 재외 탈북자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방향

[관련사이트 목록]

- ① 윤여상 박사의 개인 홈페이지 <http://www.iloveminority.com>
- ② 북한이탈주민후원회 <http://www.dongposarang.or.kr>
- ③ (사) 좋은벗들 <http://www.junto.org>
- ④ 윤인진 교수(고려대 사회학과) 개인 홈페이지
<http://web.korea.ac.kr/~yoonin>
- ⑤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 <http://www.nk-refugees.or.kr/>
- ⑥ 두리하나선교회 <http://durihana.com>
- ⑦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관련자료 목록]

1. 탈북자의 실태, 사회적응

- ① 광호의 일기 제1~3권
김광호 / 서울: 신원문화사 / 1990
- ② 북한 대량난민 발생 가능성과 동화정책방향
김구섭 / 합참 / 1995
- ③ 안경없는 군대 이야기
김군대 편 / 의암 / 1993
- ④ 탈북자 발생 배경분석
김병로 / 민족통일연구원 / 1994
- ⑤ 북한 이탈 여성 주민 생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김엘리 / (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1999
- ⑥ 머리를 빠는 남자
김 용 / 도서출판 자작나무 / 1992
- ⑦ 빨래하는 남자
김 용 / 도서출판 자작나무 / 1993

- ⑧ **탈북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지윤. 윤여상 / 1997
- ⑨ **'97 신진 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
통일원 / 통일교육 / 홍보(V)
- ⑩ **내가 남이냐 내가 남이냐**
안 혁 / 오대양출판사 / 1994
- ⑪ **대왕의 제전 I, II, III**
안 혁, 강철환 / 도서출판 향실 / 1993
- ⑫ **와 헛바쿠를 돕네까?**
여만철 외 / 도서출판 향실, 다나출판사 / 1995
- ⑬ **흰것도 검다**
여만철 외 / 도서출판 향실, 다나출판사 / 1996
- ⑭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윤인진 / 한국사회학회지 제33집 / 1999
- ⑮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
이영선, 전우택 / 도서출판 오름 / 1996
- ⑯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
이장호 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1998
- ⑰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적응에 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의 전망과 대책**
전우택 / 신경정신의학 / 1996
- ⑱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난민, 한국인 이민자, 북한귀순자를 중심으로**
전우택 /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 V / 1995
- ⑲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우택 / 통일연구 1권2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 1997
- ⑳ **탈북자 보호 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활동 및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 보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전우택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 발표회 자료 / 1999
- ㉑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 연구**
정기선 / 통일문제연구 제 11권 2호 상반기 / 1999

- ⑳ **북한이주민의 한국사회동화를 위한 법제도론**
정영화 / 통일연구 2권, 1997.12. 서경대 통일문제연구소
- ㉑ **탈북 귀순자의 적응 과정과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 방식**
정유선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 학위 논문 / 1998
- ㉒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좋은벗들 / 정토출판 / 1999
- ㉓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
통일부 / 미간행 보고서 / 1998
- ㉔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자료집**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1999
- ㉕ **북한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내용의 체계화방안**
한만길 / 통일연구논총 6권 1호 / 1997
- ㉖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와 방안**
한만길 / 통일연구논총 5권 2호 / 1996

2.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문제 (국외)

- ① **중국 동북지역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
윤여상 / 북한인권시민연합 학술토론회 발표논문 / 1998
- ② **재러시아 북한 난민의 실태 및 보호 방안**
윤여상 /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 발표 자료 / 1999
- ③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체성호 / 북한연구 제5권 3호 / 1994
- ④ **탈북자문제 - 중국 현지조사 연구 보고를 중심으로**
평화토론회 / 1999

* 해당 문헌 정리는 윤인진 교수가 정리한 내용을 기초로 발췌, 수정되었음을 밝힙니다.
(출처 : <http://web.korea.ac.kr/~yoonin/nkmigrants/intro.html>)

9

언론인

9 언론인



언론인은 그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인권침해의 주요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또한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의 사적 정보를 지킬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상충되는 권리관계들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언론인의 인권에 대한 의식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단순히 언론인의 인권에 대한 의식과 자세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일반 시민의 정보와 매체에 대한 인권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일단 대중을 위한 방송 모니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분야 담당기자 전문연수

주 최 한국 언론재단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2-15층

전화 및 팩스 : 02)2001-7833 02)2001-7830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http://www.hrights.or.kr> hrights@chol.com

기 간 2003년 9월 29일 ~ 10월 2일(2000년부터 년 1회씩 실시)

대 상

인권분야 담당 기자들(종합일간지 10명, 지상파방송 5명, 케이블 방송 1명, 인터넷 매체 2명 등 총 18명)

인권 교육상의 특징

한국언론재단은 언론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크게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취재 및 기사작성법, 컴퓨터 활용취재기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본연수 프로그램과 분야별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연수 프로그램으로 구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인권을 주제로 언론윤리를 다루는 내용으로, 언론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년에 1회정도 실시되면서도 한 회 20명 미만의 낮은 참여율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다 다양하고 양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전체구성 - 총 8강좌 21시간 강의로 구성되어 진행

강좌내용

● 1) **인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

(국가인권위원회 박경서 상임위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 2)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강좌**

(김창석 한겨레21 팀장)

● 3) **인권영화 이해 강좌**

(오동진 전 씨네버스 편집장)

● 4) **'개인 인권과 언론보도' 강좌**

(2000년 커밍아웃 이후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를 당한 연예인 홍석천씨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

10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10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이야기될 때면 늘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강조되곤 한다. 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10년 이상을 거쳐야 하는 의무적, 공식적인 교육의 장이므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인권의식 고취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인권적 감수성은 단시간 내에, 일회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학교는 중요한 인권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학생의 연령별, 학년별, 성별 특성은 물론이고 교과목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사례집에서는 초등, 중등학교의 단위별 특성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인권의 눈으로 학교생활 보기’, ‘더불어 함께하는 교실 만들기’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안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차별과 차이, 권리에 대한 인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선정된 교육소재가 학교생활, 주변 친구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이며 친근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학생과의 대화, 수업장면 등에서 인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목록표를 첨부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은 현재 학교현장 안에서 인권교육을 고민하고 실시하는 교사들이 직접 개발, 수정한 자료로서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이외 참고할 만한 사이트, 수업에 활용가능한 동화책 및 참고문헌 정보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함께 기재하였다.

프로그램 1 : 학교 생활과 인권

프로그램 출처

청소년 인권교육 지도자를 위한 홈페이지 <http://www.1318hre.net>

* 사이트 소개 : 청소년인권 교육에 대한 이해

청소년인권교육매뉴얼의 구성에 대한 이해

청소년인권교육매뉴얼의 소개

청소년인권교육사진 자료 및 동영상 자료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자료실

청소년인권교육지도자양성교육 및 청소년 인권 교육 과정 안내

청소년 인권관련 방송자료 링크

프로그램 개발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청소년 인권 교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팀

프로그램 특징

소개하는 [프로그램 1 - 학교생활과 인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목 수업 시간 보다는 재량활동 시간,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일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다시금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들로, 전체 4차시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재)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이외 관련된 다른 자료들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구할 수 있다.

프로그램

● 가. 이단계의 목표

- 1) 나의 학교 생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 인권의 눈으로 우리의 학교 생활을 관찰하여 문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3)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남의 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권리임을 깨닫는다.
- 4) 학교 생활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인권 문제를 말할 수 있다.
- 5) 토론을 통해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6)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세를 갖는다.

● 나. 이 단계의 전개와 내용

차시	프로그램	내용
1/4 차시	학교 일과 표현하기	하루의 학교 생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일기로 쓰기, 만화로 그리기, 포스터 그리기, 노래 가사 바꾸기 등)
2/4 차시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생활 1	인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 표시하기
3/4 차시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생활 2	내가 침해하는 다른 친구의 인권, 학생이 침해하는 교사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기
4/4 차시	인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 토론하기	인권 침해 사례 중 택 1 하여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

● 다. 이 단계를 진행하는 선생님들께

이 단계는 4차시로 짜여져 있으나 선생님들의 선택에 따라 1, 2, 3차시만 진행하고 4차시 진행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1차시: 학교 일과 표현하기

- ▷ 단 계: 학교 생활과 인권
- ▷ 주 제: 학교 일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1/4 차시)
- ▷ 대 상: 중고등학생
- ▷ 인 원: 1개 학급(6인 1모둠)
- ▷ 진 행: 교사 1명
- ▷ 장 소: 교 실
- ▷ 준비물(교사): 모둠별 전지 2~3장(혹은 교실에 OHP가 있는 경우 TP를 여러 장 준비), 색색 크레파스, 사인펜
- ▷ 준비물(학생): 필기도구

■ 활동 목표: 나의 학교 생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활동 개요

도입	모둠 대형으로 책상 배열 모둠별로 전지, 크레파스 배부 오늘의 활동 소개	5분
전개	하루의 학교 생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기 (일기로 적어보기, 민화로 그리기, 포스터 그리기, 노래가사 바꾸기 등)	40분
정리	다음 시간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쓴 작품 걷기	3분
차시예고	차시예고	2분

■ 활동 내용

1. 도입

- ▷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교실 환경을 조성한다.(모둠별 책상 배열)
- ② 모둠별로 전지, 크레파스 등을 배부한다.
- ③ 오늘의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 이렇게 말씀하세요

- ① 오늘부터 4시간 동안은 ‘학교생활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② 중고등학생으로서 전형적인 학교의 하루 생활을 표현해보는 겁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하루 일과를 보여 준다고 생각하고 모둠 구성원 모두의 공동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형식은 모둠별로 일기 형식 혹은 만화로 그리기, 포스터 그리기, 노래가사 바꾸기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2. 전개

▷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모둠별로 하루의 학교 생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일기로 적어보기, 만화로 그리기, 포스터 그리기, 노래 가사 바꾸기 등)

▷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 ① 교실에 OHP가 있는 경우 전지에 적는 것보다 TP에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 ② 전지에 표현할 때는 나중에 칠판에 붙여서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글자를 다른 학생이 볼 수 있게 크게 쓰도록 지도한다.

3. 정리

▷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다음 시간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쓴 작품을 걷는다

▷ 이렇게 말씀하세요.

- ① 자, 이제 여러분이 완성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 ② 시간 내에 다 완성하지 못한 학생들은 완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 ① 그냥 다음 시간까지 결과물을 가져오도록 하면 학생들이 나중에 미루어두었다가 안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므로 당일에 결과물을 다 걷도록 한다.
- ② 교사는 결과물을 거두어 가지고 있다가 다음 시간이 시작될 때 나누어준다. 잊고 가져

프로그램 세부내용

오지 않는 학생이 많이 생겨 학습 활동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차시에고

▷ 이렇게 말씀하세요

- 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표현한 학교 생활을 인권의 눈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②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작성한 작품에서 인권 침해 부분을 찾아스티커로 표시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 ③ 여러분이 제출한 작품은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 교시를 위한 도움말

이 단계 진행을 위한 참고도서로는

- 배경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울림 등이 있습니다.

⊗ 2차시 :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생활 1

- ▷ 단 계 : 학교 생활과 인권
- ▷ 주 제 :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생활 1 (2/4 차시)
- ▷ 대 상 : 중고등학생
- ▷ 인 원 : 1개 학급(6인1모둠)
- ▷ 진 행 : 교사 1명
- ▷ 장 소 : 교 실
- ▷ 준비물(교사) :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각각 모둠별 숫자대로 복사한 유인물,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 OHP, 포스트 잇, 스티커 테이프
- ▷ 준비물(학생) : 필기도구

■ 활동 목표

- 1) 인권의 눈으로 우리의 학교 생활을 관찰하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 2) 각각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린이 · 청소년 권리조약 몇 조에 어긋나는가 파악할 수 있다.
- 3) 나의 인권이 소중함을 깨닫는다.

■ 활동 개요

도입	지난 시간에 걷은 학생들의 작품 배부 유인물, 포스트잇 배부 오늘의 활동 소개	5분
전개	인권 침해 부분 표시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린이 · 청소년 권리조약 몇 조에 어긋나는가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기	15분
정리	모둠별로 작품 발표하기	25분
차시예고	차시 예고하기	5분

■ 활동 내용

1. 도입

▷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교실 환경을 조성한다. (모둠별 책상 배열)
- ② 지난 시간에 걷은 학생들의 작품을 배부한다.
- ③ 모둠별로 유인물, 포스트잇 등을 배부한다.
- ④ 오늘의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 이렇게 말씀하세요

- 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표현한 학교 생활을 인권의 눈으로 관찰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개

▷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하루의 학교 생활을 표현한 작품에서 인권 침해 부분을 찾도록 지도한다.
- ② 그 부분이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린이 · 청소년 권리조약 몇 조에 어긋나는가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도록 지도한다.

프로그램 세부내용

③ 이 때 세계인권선언,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기준으로 인권 침해 문제를 알아보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 이렇게 말씀하세요.

- ① 여러분이 작성한 하루의 학교 생활을 표현한 작품에서 인권 침해 부분을 찾아 봅시다.
- ② 그 부분이 세계인권선언,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몇 조에 어긋나는가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 봅시다.
- ③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와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한 것입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일명 아동권리조약)은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되었으며,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국을 보유한 조약입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조약은 아이들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 조약에 가입했고, 1991년부터 이 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 ① 세계인권선언,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익히고 인권침해 부분을 표시하고 발표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므로 시간 안배를 적절히 해야 할 것이다.

3. 정리

▷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모둠별로 작품을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사례 발표 1, 2 참조>

- ② 모둠별로 발표 후 질문을 1~2 개씩 받도록 지도한다.
- ③ 학생들의 작품을 걷는다.

▷ 이렇게 말씀하세요.

- ① 여러분이 학교에서 침해받고 있는 인권이 세계인권선언,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몇 조에 어긋나는가 알아봤을 것입니다. 이 학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권을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 ② 여러분의 작품은 제출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나누어 주겠습니다.

4. 차시에고

▷ 이렇게 말씀하세요

- ① 다음 시간에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② 여러분의 발표 내용은 주로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별로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입장을 바꿔서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교시를 위한 도움말

인권의 관점으로 학교의 일과를 표현해보라고 하면 십중팔구 학생들은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만 표현하고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별로 표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3차 시에는 반드시 입장을 바꿔서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만약 2차시로 끝내고자 한다면 1차시 때부터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함께 생각해서 표현하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 3차시: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 생활 2

- ▷ 단계학교 생활과 인권
- ▷ 주제: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생활 2(3/4 차시)
- ▷ 대상: 중고등학생
- ▷ 인원: 1개학급(6인1모둠)
- ▷ 진행: 교사1명
- ▷ 장소: 교실
- ▷ 준비물(교사): 지난 시간에 걸은 학생들의 작품
- ▷ 준비물(학생): 필기도구

■ 활동 목표

- 1) 나의 인권이 침해받아서 안되는 소중한 권리만큼 남의 인권도 침해받아서 안되는 소중한 권리를 깨닫는다.
- 2) 서로 간에 인권을 존중해야겠다는 태도를 가진다.

■ 활동 개요

도입	지난 시간에 걸은 학생들의 작품 배부 모둠별로 전지, 크레파스 배부 오늘의 활동 소개	5분
전개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찾아보기	20분
전개	각모둠별로 발표하기	20분
정리	인권 침해 사례 중 한가지 택하기	3분
차시예고	차시 예고	2분

■ 활동 내용

1. 도입

- ▷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교실 환경을 조성한다.(모둠별 책상 배열)
- ② 지난 시간에 걸은 학생들의 작품을 배부한다.

프로그램 세부내용

③ 모둠별로 전지, 크레파스 등을 배부한다.

④ 오늘의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 이렇게 말씀하세요

① 지난 시간에는 주로 다른 사람이 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생각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개

▷ 이렇게 진행합니다.

① 각 모둠별로 전지에(혹은 TP에) 학생들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일기로 적어보기, 만화로 그리기, 포스터 그리기, 노래가사 바꾸기 등) 표현해 보도록 지도한다.

3. 전개

▷ 이렇게 진행합니다.

① 각 모둠별로 작품을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사례 발표 3, 4, 5, 6 참조>

4. 정리

▷ 이렇게 진행합니다.

① 다음 시간에 토론을 위해서 인권 침해 사례 중 한 가지를 택하도록 지도한다.

▷ 이렇게 말씀하세요.

① 이 활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남들의 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② 다음 시간에는 인권 침해 사례 중 택1하여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무엇으로 정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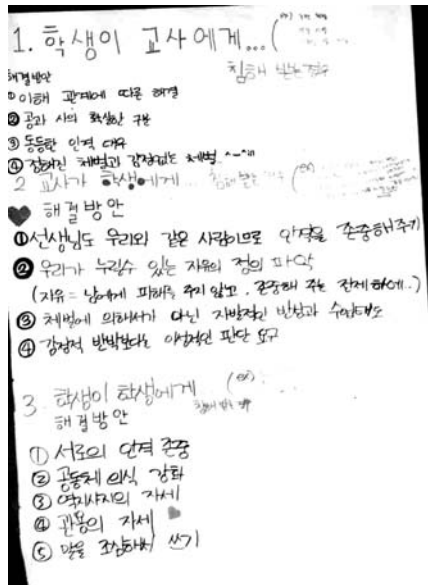
5. 차시 예고

▷ 이렇게 말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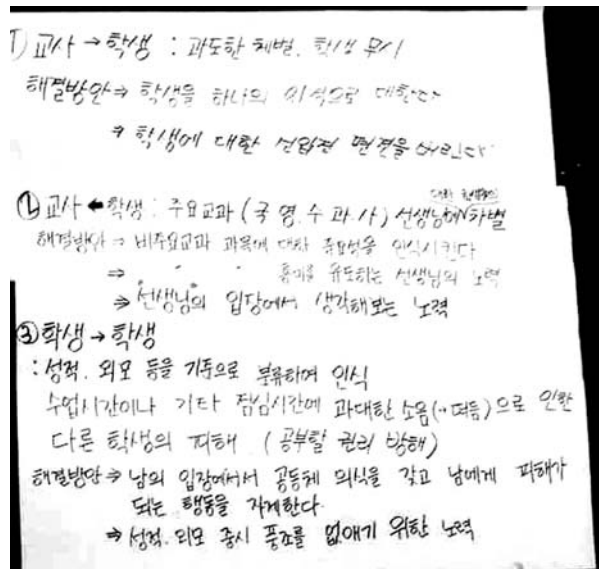
① 다음 시간의 주제는 ()으로 정해졌습니다.

② 다음 시간에 토론할 문제에 대해 생각해 오기 바랍니다.

사례 발표3>



사례 발표4>



☉ 4차시 : 인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 토론허기

- ▷ 단 계 : 학교 생활과 인권
- ▷ 주 제 : 인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허기(4/4 차시)
- ▷ 대 상 : 중고등학생
- ▷ 인 원 : 1개 학급(6인1모둠)
- ▷ 진 행 : 교사 1명
- ▷ 장 소 : 교 실
- ▷ 준비물(교사) : 학생들이 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문헌 자료나 인터넷 자료 준비하기, 간략한 요약문 모둠 숫자대로 복사
- ▷ 준비물(학생) : 필기 도구

■ 활동 목표

- 1) 인권 침해 사례 중 택1 하여 토론허기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다.
- 2) 인권 침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천 자세를 갖는다.

■ 활동 개요

도입	모둠 대형으로 책상 배열	5분
	오늘의 활동 소개	
전개	교사가 준비한 참고 자료 배부, 선택한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허기	25분
전개	토론 결과 벽에 붙이고 돌아보기	15분
정리	소감 나누기	5분

■ 활동 내용

1. 도입

- ▷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모둠 대형으로 책상을 배열한다.
 - ② 오늘의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 ▷ 이렇게 말씀하세요
 - ① 오늘 이 시간에는 인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허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지난시간에 정한 ()입니다.

2. 전개

▷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교사가 준비한참고 자료를 배부한다.
- ② 각 모둠별로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지도한다.

▷ 이렇게 말씀하세요.

- ① 여러분이 택한 주제와 관련하여 선생님이 찾아온 자료입니다. 참고할 학생들은 참고해 주세요.

▷ 이 점을 염두에두세요.

- ① 상대방 측 의견을 끝까지 경청한 후 자신의 주장을 펴도록 지도한다.
- ②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도록 지도한다.

3. 전개

▷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토론 결과를 전지에 써서 교실 벽에 붙이도록 지도한다.
- ② 각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른 모둠의 결과물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메모하도록 지도한다.

4. 정리

▷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각자의 메모 내용을 자기 모둠원들과 얘기해 보도록 지도한다.

■ 교시를 위한 도움말

토론 수업을 위한 참고 서적으로는

-『모둠토의 수업방법』(김성장, 내일을 여는 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2 : 더불어 함께하는 교실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출처

- 1) 김동희(서울 양천초), 김원정(서울 미성초)
 - 인권실천 교사사이트 재미즘 <http://www.ggamism.net> 활동
 - * 사이트 소개 : 교사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 학급운영 계획안 및 학급일기
- 학급회의록
- 수업에 활용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등
- 2) 심규선(서울 대방초)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http://www.inkwonedu.x-y.net> 활동

프로그램 특징

‘더불어 함께 하는 교실 만들기’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현장의 현직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 적용한 사례로 인권적인 학급운영을 고민하는 교사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은 주리라 기대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체 3차시로 계획되었으며, 좀 더 구체적인 참조 자료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

● 가. 학습목표

- 1)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이유를 찾아 알아 본다.
- 2) 차이와 차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나. 수업 참고자료

- 『너와 나는 정말 다를까』, 로라 자페 외, 푸른숲(2002)
- 『애들아, 인권공부하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사람생각(2003)

● 다. 함께 읽으면 좋은 동화

- 『왜 나를 미워해』, 요시모토 유키오, 보리
- 『난 이제부터 남자다』, 이규희, 세상모든책(2002)

● 라. 학습 계획

차시	주제	내용	준비물
1	모두가 소중하 이유 무시할때의 기분 알아보기 소중하 이유 마인드맵하기 정리하기	친구끼리 무시하는 상황알아보기 마인드맵 학습지 (모둠별 학습지)	차트
2	차이란 무엇인가?	내 사진을 갖고 싶니? 동화 듣기 차이의 개념알기 학습지 차이를 넣어 짧은 글짓기 하기 친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알아보기	차이란 무엇인가 (개별 학습지)
3	차별은 싫어요	차별 받았던 경험 발표하기 자신이 겪은 차별 사례 적어보기 사례 중 비슷한 것 묶어보기	전지(모둠 갯수) 색연필 또는 사인펜(모둠별)

☒ 1차시: 모두가 소중한 이유

■ 진행순서

1) Best5 ‘앗, 친구끼리 이렇게 무시할 수가?’

- ‘초등학교 선생님 100분에게 물었습니다’ 를 진행한다.
- 차트를 만들고, 모둠별로 맞추기 게임형식으로 진행

2) 1)의 내용을 정리하고 무시당했을 때의 기분 알아보기

- 진행예) T: 교사, S: 학생

T: 지금까지 교실에서 친구끼리 무시하는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무시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S: 나빴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서럽습니다. 등등

T: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이 옳바르다고 생각합니까?

S: 아니요.

T: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S: 친구끼리는 사이 좋게 지내야 해요. 사람 위에 사람은 없어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등등

T: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왜 모두가 소중한 사람인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모두가 소중한 이유’ 마인드맵 다함께 하기

- 학습지를 나누어 주고 교사는 실물화상기등을 이용하여 함께 마인드맵을 한다.
- 진행예)

T: 갓난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각을 하나씩 넓혀가봅시다.

S: 입을 것, 먹을 것, 살 곳, 교육받는 것, 노는 것 등등

4) 정리하기

-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럿이 모여 살고 있으며,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교실만들기 1차시 학습자료]

Best5 ‘앗, 친구끼리 이렇게 무시할 수가?’
- 초등학교 선생님 100분에게 물었습니다.

순위	내용	응답자수
1위	“너는 몰라도 돼”하며 몇몇이서 속닥거릴 때	27
2위	외모에 관해서 무시할 때	21
3위	노는 데 끼워주지 않을 때	20
4위	공부 못한다고 무시할 때 (달리기, 축구등)	15
5위	자기보다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힐 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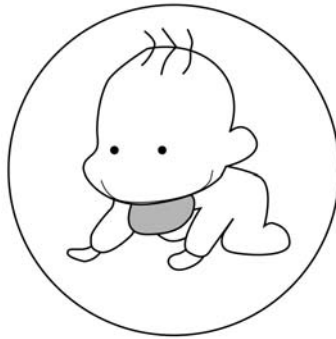
기타 답변엔

틀린 답을 말했을 경우, 전학 온 아이를 시기하여 무시하거나 왕따 시킬 때, 욕 등의 비속어를 쓸 때, 먹을 것을 몇몇 친구에게만 나눠줄 때, 특수학급이라고 무시할 때, 별명가지고 놀릴 때, 집 가난하다고 놀릴 때 등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교실만들기 1차시 학습지]

모두가 소중한 이유()모듬

※ 아래의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크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넓혀가며 키워봅시다.



◎ ‘모두가 소중한 이유’를 직접 써 봅시다.

☒ 2차시: 차이란 무엇인가?

■ 진행순서

1)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듣기

‘내 사진을 갖고 싶니? (너와 나는 정말 다를까, 푸른숲)을 아이들에게 읽어준다.

* 2번부터는 개별학습지를 이용하여 수업 진행 (개별학습지를 나누어준다.)

2) 동화를 들은 후 ‘차이’에 대한 개념 익히기

3) ‘차이’ 낱말을 넣어 짧은 글짓기하기

4) ‘짝과의 차이점과 닮은 점’에 대해 생각하고 써보기

5) 정리하기

- 진행 예)

T: 자신이 생각한 차이점을 발표해 보자

S: 키가 크다 작다, 남자다 여자다, 안경을 껴다 안 껴다, 뚱뚱하다 홀쭉하다, 달리기를 잘한다 못한다, 얼굴이 까맣다 하얗다 등등

T: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더 낫다’, ‘더 못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S: 없습니다.

T: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또한 닮은 점도 많습니다. 즉, 사람은 같은 사람이면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교실만들기 2차시 학습자료]

내 사진을 갖고 싶니?

(너와 나는 정말 다를까, 푸른 숲에서 발췌)

나는 산책 나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집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만화책 보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하지만 이자벨 이모와 함께 라면 달라고. 이모와 함께라면, 공원이든, 박물관이든, 백화점이든 신나게 다닐 수 있거든요. 지난 주였습니다. 나는 이모와 함께 동물원에 갔지요. 동물원에 들어서자마자 이모는 장난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치며 나아갔어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줄리에트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이모는 침팬지 우리 앞에서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우스웠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길을 비켜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관광객이 화를 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줄을 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이모는 갑자기 브레이크 잡는 시늉을 내면서 사람들을 또 한번 웃겼어요.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오더니 마치 길 잃은 아기 원숭이라도 되는 듯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가엾은 것 같으니……. 안됐구나!”

나는 원숭이처럼 옆구리를 긁으며 혀를 쭉 내밀었어요. 그러자 이모가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지 않았어요.

우리 안으로 땅콩을 던져 주고 있는데, 이번엔 웬 꼬마 여자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동물원에서 가장 신기하게 생긴 동물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예요.

나는 눈에 가득 힘을 주고는 그 애를 쏘아보았지요. 그 애는 자기 엄마 치마 뒤로 얼른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았지요.

“줄리에트, 저 친구가 네 사진을 한 장 갖고 싶은가 보다. 말하면 찍어 줄 텐데 말이야.”

이모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 애와 너 둘이서 나란히 사진을 찍는 거야.”

이모는 내 휠체어를 밀고 그 꼬마 여자아니 앞으로 가서는 사진기 플래시를 연방 터뜨렸어요.

“음, 두 갈래로 머리를 묶고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상의 못생긴 여자아이들이로군!”

이모는 취재하기에 바쁜 기자 흉내를 내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불어 함께 하는 교실만들기 2차시학습지]

< □□란 무엇인가? >

()학년 ()반 이름 ()

줄리에트가 모처럼 나들이를 합니다.

사람들은 줄리에트의 불편한 몸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줄리에트는 다른 여자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깔깔대며 웃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일 뿐입니다.

1. □□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같지 않은 정도나 상태를 나타낼 때에도 □□라는 말을 씁니다.

2. □□라는 말을 넣어 짧은 글짓기를 하여 봅시다.

3. ‘작과의 □□점과 닮은 점’을 찾아 써 봅시다.

□□점

닮은 점

☒ 3차시 : 차별은 싫어요

■ 진행순서

- 1) 교사가 자신의 차별 경험 이야기를 통해 '차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2) 차별 받았던 경험을 아이들이 발표한다. (몇몇만)
- 3) 차별 사례 적어보기
 - 모둠별 전지 한 장씩 나눠주기
 - 모둠원 각자 생각나는 것 모두 적기
- 4) 사례 중에서 비슷한 것 묶어보기
 - 색연필이나 색사인펜을 이용하여 비슷한 것은 같은 색깔로 동그라미 표시한다.
- 5) 정리하기

- 진행예)

T: 지금까지 알아 본 차별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S: 남녀, 뚱뚱하다는 이유, 공부못한다는 이유 등등.

T: 이러한 이유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S: 차이입니다.

T: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람들에게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사람이 소중하다는 진리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 부당하게 대우하는 차별은 잘못된 것입니다.

T: 그럼, 서로간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S: 무시하지 말아요. 차별하지 말아요.

T: 네. 그럼, 우리의 이런 뜻을 앞으로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선서

“우리 ○학년 ○반 친구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권적인 교실을 위한 교사 주간 평가지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은 『당신도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다: 효율적인 교수를 위한 체계적 훈련』(임승렬 역, 1996)의 기초 개발자료를 바탕으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에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프로그램출처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http://www.inkwonedu.x-y.net>)

* 사이트 소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모임 기초 구성원이 초등학교 교사이므로, 홈페이지 수록 자료들이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이며, 개발한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 평가하는 과정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상자가 반드시 아동이 아니더라도, 두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유 자료의 양이 상당하다.

- 초등학교 고학년/저학년용 프로그램 개발 자료
- 인권적 학급운영에 관한 자료(프로그램 및 참고 자료)
- 인권적 대화법에 관한 자료(프로그램 및 참고 자료)
- 수업 평가지 및 기타 피드백 자료
- 인권교육 관련 국내 문헌 및 외국 문헌 자료

프로그램 특징

인권적인 교실을 만들고, 학급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적인 학급경영은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학교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교사의 자발적인 그리고 규칙적인 자기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관되게 인권교육을 해나가기 어렵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권적인 교실을 위한 교사 주간평가지>로서, 교사로서 주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평가 체크리스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록표 외 인권적인 학급경영을 위해 필요한 참고내용이 함께 기재되었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

인권적인 교실을 위한 - 교사주간 평가표

()월 ()주 교사()

■ 일주일 교사 자기 평가표

훈계하기	전혀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가끔 했다 <input type="checkbox"/> / 자주 했다 <input type="checkbox"/>
벌주기	전혀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가끔 했다 <input type="checkbox"/> / 자주 했다 <input type="checkbox"/>
창피주기	전혀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가끔 했다 <input type="checkbox"/> / 자주 했다 <input type="checkbox"/>
간섭하기	전혀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가끔 했다 <input type="checkbox"/> / 자주 했다 <input type="checkbox"/>
잔소리하기	전혀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가끔 했다 <input type="checkbox"/> / 자주 했다 <input type="checkbox"/>
겉주기	전혀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가끔 했다 <input type="checkbox"/> / 자주 했다 <input type="checkbox"/>
경고하기	전혀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가끔 했다 <input type="checkbox"/> / 자주 했다 <input type="checkbox"/>
화내기	전혀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가끔 했다 <input type="checkbox"/> / 자주 했다 <input type="checkbox"/>
체벌하기	전혀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가끔 했다 <input type="checkbox"/> / 자주 했다 <input type="checkbox"/>
뇌물주기	전혀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가끔 했다 <input type="checkbox"/> / 자주 했다 <input type="checkbox"/>

■ 인권적인 대화법 활용 평가표

나 메시지 대화법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생각날 때만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input type="checkbox"/>
공감하며 들어주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생각날 때만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input type="checkbox"/>
격려하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생각날 때만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선택의 기회 주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생각날 때만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input type="checkbox"/>
논리적 결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생각날 때만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책임지게 하기	

■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평가표

번호	문제행동유형 (A/B/C/D)	문제행동관련대응 (a/b/c/d/e/f/g/h/i/j)	대응 후 평가 (%)
1			
2			
3			
4			

<범례> 문제행동 유형 - A: 관심 끌기/B: 세력과시/C: 보복하기/D: 도피행위

관련 대응 - a: 나 메시지/b: 공감하며 들어주기/c: 논리적 결과/d: 격려하기/e: 선택의 기회 주기/f: 역할주기

g: 한 단어로/h: 상황 말하기/i: 문제 해결 지 이용하기/j: 집단에서 격리시키기/k: 무시하기/l: 스스로 목표 설정하기

■ 새로 발생된 문제

인권적인 교실을 위한 길잡이

■ 인권적인 교실에서의 아이들과 교사

인권적 교실에서 아이들과 교사는 동등한 인격을 지닌 존재이며 상호 존중의 관계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아이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로 가르칠 의무가 있다

■ 인권적인 대화법

* 나 메시지 대화법

- 1) 문제 행동이 발생될 때 주로 사용한다.
- 2) 문제 행동이 발생되었을 때 아이의 인격이나 품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 3) 표정이나 말투를 자상하게 이야기한다.
- 4) 방법

나는 (아이들의 품성이나 습관이 인격이 아닌 발생된 상황이나 행동)때문에(실망스럽다/걱정된다/안타깝다 등)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문제 행동에 대한 논리적 결과)가 생기거든

예) “나는 옆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 왜냐하면 모든 너와 친구가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거든”

* 공감하며 들어주기

- 1) 아이들이 교사에게 이야기 할 때 사용한다.
- 2) 최대한 성의껏 들어준다
- 3) 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하며 들어준다.
- 4) 아이들의 습관이나 인격 등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 5) 훈계나 충고, 평가하지 않는다
- 6) 방법

- 기본적인 경청

“음... 그렇구나” 등으로 들어준다.

- 아이가 자기 감정을 들어내는 경우

(아이의 대화에서 알려진 감정을 공감하며)구나/같구나 등으로 표현한다

예) “오늘 수학 시험을 망쳤어요.”

프로그램 예

“수학 성적이 안나와서 기분이 상했나 보구나.”

* (칭찬이 아닌) 격려하기

- 1) 아이의 인격이나 습관 등을 칭찬하지 않는다. 예) 착한 아이/정직한 아이 등
- 2) 결과가 아닌 과정을 격려한다.
예) “이 그림을 보니 네가 즐겁게 미술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 3) 상황에 대한 나의 느낌을 이야기 해 준다.
예) “깨끗한 교실을 보니 내 마음이 흐뭇하다”
- 4) 격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시켜준다
예) “그런 태도를 참을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단다.”

* 선택의 기회 주기

- 1) 억압적인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준다.
“조용히 할래 아니면 벌 선풌?” (X)
“네가 선택하렵다 떠들고 나서 허비한 시간 만큼 수업을 할거니 아니면 수업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이야기 할거니?” (O)

* 논리적 결과로 책임지게 하기

- 1) 이야기 할 때 최대한 아이들을 존중한다.
“미안하지만 창숙이는 더 이상 체험활동을 하고 싶지 않나 보구나.”
- 2) 아이들의 문제 행동의 문제의 주체가 누군지 알아본다.
“교실에서 떠드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 때문에 실망스럽 단다. 또 동호 너도 수업을 못 듣게 되고 말이야. 너의 행동을 보니 네가 더 이상 수업을 하고 싶지 않나 보구나.”
- 3) 훈계하지 말고 단호하게 논리적 결과를 보여 준다.
“기회는 많단다. 다음 기회에 정확히 지켜려 무나.”

■ 인권 교육에서 문제행동이란?

- 1)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 행위
- 3) 민주적인 질서나 합리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 행위
- 4)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방관하는 행위
- 5) 평화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

■ 문제행동 유형

드레이크스에 따르면 아이들은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성취 동기의 중요한 작용을 하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통해 소속감을 확인시킨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아이들이 올바른 소속감과 자신감을 형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관심끌기

유형> 집단에서 교사나 아이들에게 주목받아야 소속감을 느낀다.

아동> 교사가 화를 내지 않을 만큼의 문제 행동을 반복한다

교사> 짜증나거나 측은하게 생각된다

대응> $h(g) \rightarrow k \rightarrow a \rightarrow i \rightarrow j$

* 세력과시

유형> 집단에서 억압당하거나 힘을 과시 할 때 소속감을 느낀다.

아동> 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화를 내게 만든다

교사> 화가 나고 야단을 친다

대응> $h(g) \rightarrow a \rightarrow b \rightarrow e \rightarrow i \rightarrow f \rightarrow j$

* 보복하기

유형> 복수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낀다

아동> 교사를 당황하고 충격 받게 한다

교사>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대응> $h(g) \rightarrow a \rightarrow b \rightarrow e \rightarrow b \rightarrow i \rightarrow j$

* 도피행위

유형>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보이므로 소속감을 느낀다

아동>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려 한다.

교사> 짜증나고 지친다

인권 교육 현장 사례 집

아이에서 어른까지, 소수자도 함께

인쇄일 : 2003년 12월 27일

발행일 : 2003년 12월 30일

발행인 : 김창국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우 100-842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 (02) 2125-9674

FAX : (02) 2125-9677

인 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 화 : (02) 313-7593 FAX : 393-3016

〈비매품〉